

NOBLESS

OCTOBER. 2023 VOL. 30

KITIA 소재·부품·장비 정책, 투자정보 전문 매거진

Contents

With · KITIA

전문가 칼럼	첨단전략산업 환경변화의 특징과 대응방안
Policy&Benefit	소부장·R&D·투자 정부 정책 소개
경영인 인터뷰	기회는 위기에서 온다 변화에 대응하며 성장하는 지애펍벤처투자

Focus · KIT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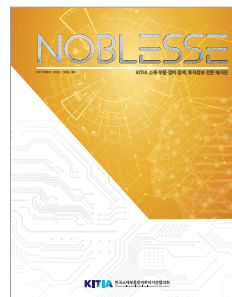
글로벌테크놀로지	기술을 완성하는 팹리스 글로벌테크놀로지, 디스플레이의 미래를 여는 강소기업
이큐어	알츠하이머 치료에 도전 이큐어의 알츠하이머 치료 전자약
티에스아이코리아	디스플레이 검사기에서 로봇 기업으로 변신 티에스아이코리아, 사람 냄새나는 첨단 벤처

Invest · KITIA

Tech Connect	기술 우수 기업 소개 - 국가전략기술, 우주·항공 중심으로
The Deals	투자유치 희망 소재·부품·장비 벤처기업

Inside · KITIA

KITIA 동정
구독안내



통권 30호
 발행일 2023년 10월 20일
 발행처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5층
 연락처 Tel. 02-6000-7070 Fax. 02-6000-7998
 홈페이지 <https://invest.kitia.or.kr/>
 기획·디자인 유니크플러스(Tel. 02-2140-1114)
 KITI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첨단전략산업 환경변화의 특징과 대응방안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박용정 산업혁신팀장
이진하 선임연구원
민지원 선임연구원

본 원고는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741호에 실린 '첨단전략산업 환경변화의 특징과 대응방안 -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를 발췌하여 게재한 원고입니다.

Executive Summary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급망 내재화, 기술경쟁 등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4개 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17개 첨단전략기술을 선정하였는데, 산업의 성장성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가치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산업군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시장 규모 및 성장성이 높은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첨단전략산업 환경변화의 특징

① 첨단전략산업 주도권 확보 움직임 활발

반도체 산업에서 주요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 생산 역량 강화 및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세제지원과 기업유치, 인력 양성 등의 정책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제조 인센티브 및 연구 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반도체 굴기 실현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자급률 향상에 정책의 방점이 찍혀있다. 한편, 일본은 양산체제 구축을 통한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역내 생산능력 제고에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에 한국은 기업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 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골자로 2022년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수립하였다. 배터리 산업에서 주요국은 차세대 기술선점,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친환경 투자 확대 차원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친환경과 물가 대응의 일환으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중국은 新에너지차 육성과 수요 확대를 통한 이차전지 산업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제품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향상과 제조기반 확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관지원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친환경 제품의 역내 제조역량 확대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한국은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확보, 첨단기술 혁신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등을 목표로 2022년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

② 디지털 일상화(Digital everywhere)와 기술 초격차 경쟁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산업간 융합의 촉발로 고위기술 기반의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은 제품·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을 활용한 제품의 소비뿐 아니라 병원, 강의 등 서비스 산업에서도 디지털 기반기술을 활용한 사업 전략 추진이 활발하다. 이렇듯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합이 활발해 짐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및 중·고위 기술 제조업의 중요성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한 플랫폼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고성능 반도체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AI 기업의 반도

체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가 2017년 7.8억 달러에서 2021년 60.0억 달러까지 7.7배 이상 확대된 가운데 글로벌 정보기술 시장조사 기관인 미국의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2년 444.4억 달러 규모에서 2026년 860.8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전기자동차 생산이 가속화되면서 이차전지 시장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이슈의 부각 등으로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이차전지 시장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경제 분절화(Fragmentation)와 공급망 리스크

세계 경제의 통합 정도가 축소되는 현상인 경제 분절화가 심화함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의 취약성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 차질은 주요국 경제 활동을 제약하였고 동시에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는 상하이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크고 작은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동시에 글로벌 무역 제한 조치 건수는 2009년 대비 2022년 상품 7.0배, 투자 33.3배, 서비스 9.3배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 제조업 부문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주요국 중 가장 높아 공급망 취약성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용 원자재의 수입의존도는 제조업 강국인 G7 등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인 49.0%이다. 이 중 한국은 중국(29.3%), 일본(13.5%), 미국(10.1%), 대만(7.0%), 베트남(4.3%), 호주(3.8%)로부터 가장 많은 산업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산업 밸류체인 상 한국은 후방참여도가 높은 국가군으로 분석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분업구조로 공급망이 구축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주요 제조업 강국과 경쟁이 치열하다. 2022년 기준 전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은 중국(24.5%), 대만(21.7%), 한국(19.9%), 일본(12.6%) 순으로 아시아 지역이 전체의 78.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2년 연간누적 사용량 기준 중국이 60.4%로 비중이 가장 높고 한국 23.7%, 일본 7.3% 순이다.

④ 투자의 탈동조화(Decoupling)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투자대상국의 탈동조화가 심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 심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취약성 부각의 영향으로 경제의 분절화가 진행되면서 투자 역시 크게 둔화하고 있다. 글로벌 GDP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1% 수준이었지만, 2018년 0.5%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1% 내외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동시에 우방국 경제 블록화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프렌드 쇼어링, 리쇼어링 등의 투자가 부각되고 있다. 관련 투자는 매출액, 수익성, 직원 수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자국 기업의 본국 생산기지 유턴을 의미하는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반도체산업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코로나19 이후 탈동조화가 심화하고 있다. 2018년 미·중 무역분쟁 이전 중국 반도체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중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액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22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 역대 최대인 304.5억 달러(3,463건)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3.2%(12.1%) 증가한 수치이다. 전기전자 산업 중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및 축전기 제조업(19.5억 달러, 전년대비 266.2% 증가)과 반도체 제조업(8.5억 달러, 전년대비 84.1% 증가)으로의 투자는 가장 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 첨단전략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배터리 첨단전략산업의 산업적 가치는 높은 수준으로 최근 들어 업황, 기술경쟁 등 대외적인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및 배터리 시장에서 매출액 상위 10위 내에 포함된 삼성전자(반도체 부문), SK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배터리 부문), 삼성 SDI, SK ON 총 5개 기업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7~10%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둔화 흐름과 함께 이들 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역시 '21년 2분기 2.1%p에서 '22년 4분기 △2.3%p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첨단전략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요 및 공급 변수와 정책적 요인 등 4변수 VAR(Vector Autoregressive Model)를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반도체 및 배터리 기업의 매출액이 10% 상승했을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0.248%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와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1p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각각 0.104%p, 0.089%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대응전략 및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국제 분업 체계의 취약성이 부각하고,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고위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지속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첫째, 자국 및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둘째,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원화 및 자체 공급망 확보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국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지속을 위해서는 핵심 장비 및 소재에 대한 기술개발뿐 아니라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산업 디지털 전환이 산업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디지털 신기술 확보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다섯째,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 확대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1. 개요

● **주요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급망 내재화, 기술경쟁 등이 치열하게 전개

- 첨단전략산업은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산업군으로 분류

• 정부는 20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을 통해 4개 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17개 첨단전략기술을 선정함

• 특히,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25.8%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산업적 가치가 높은 산업군임

- 세계 산업경기 둔화 속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의 자국 중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적 뒷받침을 강화

• 2022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는 교역량 둔화, 제조업 업황 위축 등에 직면한 가운데 국내 역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재고율이 확대되는 등 산업경기의 부진 흐름이 지속

•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생산공장 유치, 자국 기업 육성,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을 골자로 한 정책 기반 마련에 집중

●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시장 규모 및 성장성이 높은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관련 시사점을 도출**

2. 첨단전략산업 환경변화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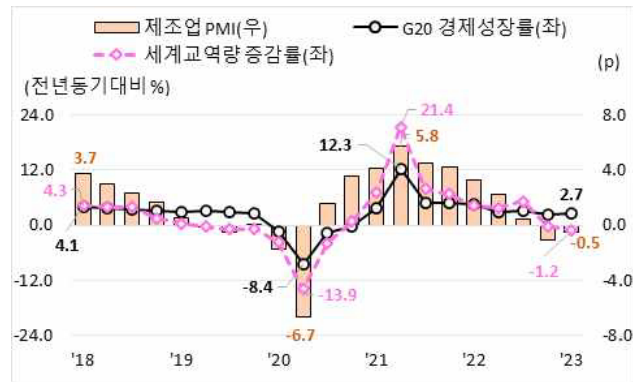
(1) 첨단전략산업 주도권 확보 움직임 활발¹⁾

● **(반도체)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 생산 역량 강화 및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세계지원과 기업유치, 인력 양성 등의 정책 수립에 집중**

- (미국·중국) 미국은 제조 인센티브 및 R&D 지원 강화, 중국은 반도체 굴기 실현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 자급률 향상에 정책의 방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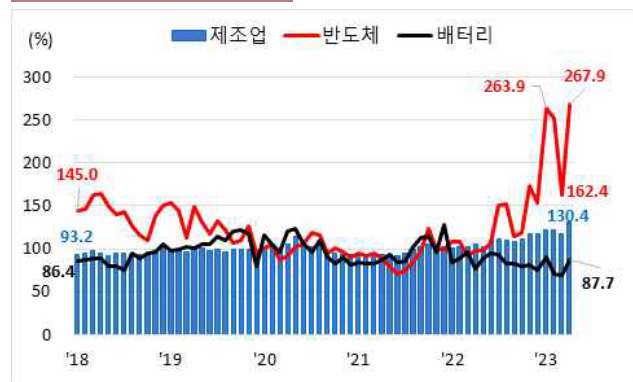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에서 생산 및 연구개발 확충에 520억 달러, FABS Act(Facilitating American-Built Semiconductors Act) 240억 달러 규모의 시설장비 투자 세액공제(25%),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서는 제조, R&D, 인력 양성에 527억 달러 투자 지원책을 마련함

세계 산업경기 동향



자료: OECD, CPB, Bloomberg
주: 제조업 PMI는 기준치 50p를 뺀 자료로 0보다 크면(작으면) 확장(수축) 국면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재고율 추이



자료: KOSIS
주: 재고율은 계절조정기준 재고지수 / 출하지수의 백분율임

※ 첨단 반도체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NSTC(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설립 추진

•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에서 시장 규모에 비해 낮은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 70%까지 높이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14차 5개년 계획(21.3)에서는 설계, 첨단 메모리 기술, 3세대 반도체 등의 개발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와 기금 조성을 통한 기업지원 육성책을 강화함
※ National IC Fund 1기('14년 9월): 약 24조 원, 2기('19년 10월) 약 34조 원

- (한국) 기업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 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수립(22.7)

• (한국) 기업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 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수립(22.7)

● **(배터리) 차세대 기술선점,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친환경 투자 확대 차원의 전략 수립**

- (미국·중국) 미국은 친환경과 물가 대응의 일환으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 수립, 중국은 **신에너지차 육성과 수요 확대**를 통한 이차전지 산업의 질적 성장에 목표

•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22.8)에서 첨단 및 청정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자국내 전기차 투자 보조금 혜택을 위한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요건 등을 마련함

• 중국은 3060 정책(21.10)에서 '6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기차 동차 및 이차전지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고, 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고효율 배터리 기술 확보, 전자설비, 동력시스템 개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일본·유럽연합) 일본은 제품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향상과 제조기반 확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관지원 강화, 유럽연합은 친환경 제품의 **역내 제조역량 확대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 일본은 **축전지 산업전략(22.8)**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자국내 연간 배터리 제조기반 확립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3.4조엔(부품제조 1.3조엔, 전지제조 2.1조엔) 투자를 목표

• 유럽연합은 **넷제로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23.3)**, 배터리규정(Batteries Regulation, '22.12)을 통해 재활용 원료 사용 및 폐배터리 수거 의무를 강화함

- (한국)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확보, 첨단기술 혁신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등을 목표로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22.11)

• 핵심광물 특정 국가의존도는 낮추고 차세대 기술 투자, 배터리 순환 체계 구축, 국내 중심의 최신 공정·소재 개발 등 경쟁력 축적에 목표 수립

(2) 디지털 일상화(Digital everywhere)와 기술 초격차 경쟁

●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산업간 융합의 촉발로 고위 기술기반의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은 제품·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가속

• 플랫폼을 활용한 제품의 소비뿐 아니라 병원, 강의 등 서비스 산업에서도 디지털 기반기술을 활용한 사업 전략 추진이 활발

• 코로나19 이후 기업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비중은 36%에서 58%로 증가했으며, 이는 평균 3년의 기간이 가속화되어 나타난 현상임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재고율 추이

반도체	배터리
<p>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혁신경쟁법(2021), 반도체 과학법(2022) → 제조 인센티브 및 R&D 지원 강화 (미국혁신경쟁법) 생산연구개발 520억 달러 투자, 첨단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25% 세액 공제 (반도체 과학법) 제조, R&D, 인력 양성에 527억 달러 투자 	<p>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플레이션감축법(2022) → 친환경 및 물가 대응 (인플레이션감축법) 첨단 및 청정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방안 구체화, 자국내 전기차 투자 보조금 혜택 요건 마련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제조 2025(2015), 14차 5개년 계획(2021) → 원천기술 확보, 반도체 자급률 향상 (제조 2025) 반도체 자급률 2025년 70% (14차 5개년) 미래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기금 조성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60 정책(2021), 14차 5개년 계획(2021) → 이차전지 산업의 질적 성장 (3060 정책)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기차 동차 및 이차전지 발전 전략 수립 (14차 5개년) 고효율 배터리 기술 확보, 전자설비, 동력시스템 개발 등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전략(2021), 반도체 산업 부활 전략(2022) → 양산체제 구축,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반도체 전략) 첨단 파운드리 공동개발 및 R&D 역량 강화 (반도체 산업 부활 전략) 생산기반 정비, 미국과의 협력 강화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전지 산업전략(2022) → 제조기반 확보, 공급망 안정화 (축전지산업전략) 2030년까지 민관 합동 투자로 축전지의 제조능력 향상, 전세계 축전지시장 점유율 20% 확보 등 축전지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
<p>E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 디지털 목표(2021), 유럽반도체법(2023) → 역내 생산능력 제고 (2030 디지털 목표) 최첨단 반도체의 20% 유럽 생산 (유럽반도체법) 430억 유로 투자 	<p>E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넷제로산업법(2023), 배터리규정(2022) → 친환경 제품 역내 제조역량 확대 및 공급망 안정화 (넷제로산업법) 배터리 등 8개 분야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 (배터리규정) 폐배터리 수거 강화 등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
<p>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2022) → 핵심 생산기지 위상 확립, 선도국가 도약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2026년까지 340조 원 투자, 향후 10년간 인력 양성 15만 명,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달성, 소부장 자립화율 50% 목표 	<p>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2022) → 안정적 공급망 확보, 첨단기술 혁신허브 구축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 핵심광물 특정 국가의존도는 낮추고 차세대 기술 투자,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 국내 중심의 최신 공정·소재 개발 등 경쟁력 축적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작성

-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및 **중고위기술 제조업의 중요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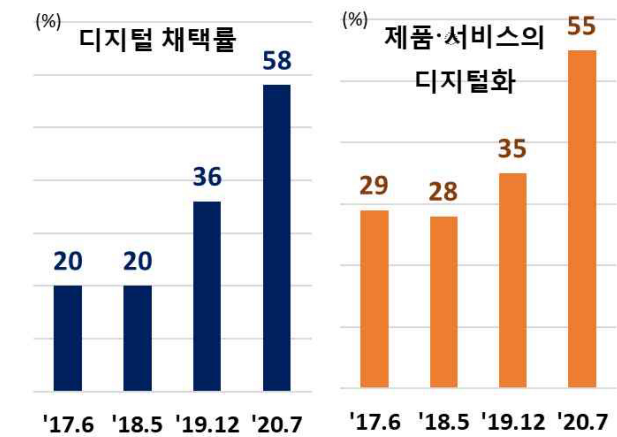
• 2021년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 비중 상위 5개국은 이스라엘 5.6%, 한국 4.9%, 대만 3.8%, 미국 3.5%, 스웨덴 3.3%로 OECD 평균 2.7%를 상회함²⁾

• 제조업 수출 대비 중·고위 기술군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2020년 일본이 81.5%로 가장 높으며 한국 77.7%, 독일 73.4%, 미국 65.1%, 중국 61.4%의 비중을 차지함

※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2020년 154개국 평가) 제조업 경쟁력: 1위 독일, 2위 중국, 3위 아일랜드, 4위 일본, 5위 한국, 6위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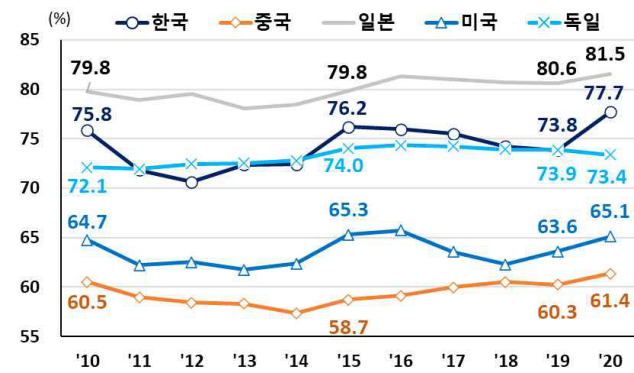
1) 정책의 세부 내용은 <참고 2> 참조.
2) OECD(2022),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Volume 2022 Issue 1.'

디지털 채택률 및 제품·서비스의 디지털화



자료: McKinsey.

국가별 중·고위 기술군 제조업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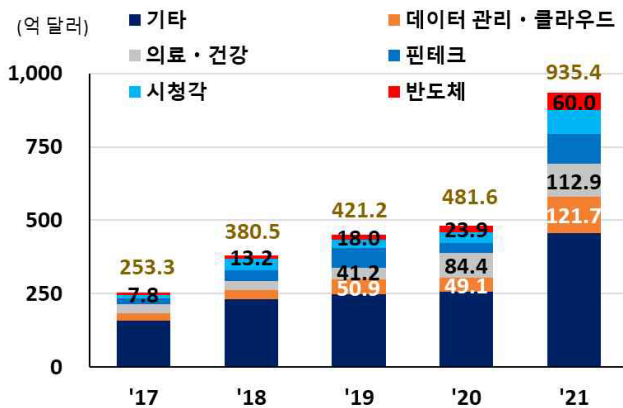


자료: UNIDO.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한 플랫폼의 상용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고성능 반도체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크게 확대
 - 최근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봇 'Chat-GPT'가 상용화됨에 따라 AI 반도체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
 - 이에 따라 AI 기업의 반도체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가 2017년 7.8억 달러에서 2021년 60.0억 달러까지 7.7배 이상 확대됨
 - 글로벌 정보기술 시장조사 기관인 미국의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2년 444.4억 달러 규모에서 2026년 860.8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전기차 생산이 가속화되면서 이차전지 시장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독일, 한국 등 주요 자동차 강국들은 전기차 생산확대를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며, 디지털 기반기술의 연구개발과 생산시설의 확대 등을 본격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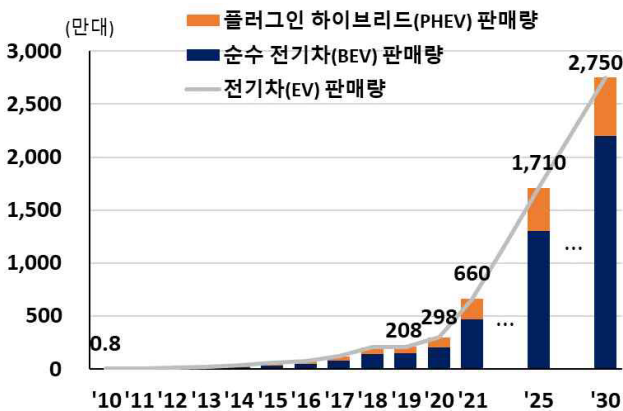
-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이슈의 부각 등으로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이차전지 시장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됨
 - ※ 2030년 글로벌 전기자동차 판매 규모 : 현행 정책 시나리오(STEPS) 기준 2,750만대, 목표선언 시나리오(APS) 기준 4,000만대.

글로벌 시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자료: NetBase, UNCTAD.
주: 15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대상.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 전망



자료: IEA.
주: 2025년 이후 전망치, 현행 정책 시나리오(STEPS) 기준, 승용차 기준.

(3) 경제 분절화(Fragmentation)와 공급망 리스크

- 세계 경제의 통합 정도가 축소되는 현상인 경제 분절화가 심화함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의 취약성이 부각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 차질은 주요국 경제 활동을 제약하였고 동시에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

-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는 2018년 미중 무역분쟁 당시 0.59p 수준에서 코로나19 이후 상하이 봉쇄 4.31p,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42p 까지 증가하는 등 크고 작은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됨
- 또한, 무역 제한 조치 건수는 2009년 대비 2022년 상품 7.0배, 투자 33.3배, 서비스 9.3배까지 증가함
 - ※ 무역 제한 조치(IMF, 건) : '09년 상품 280, 투자 7, 서비스, 57 → '22년 상품 1,968, 투자 233, 서비스 530.
- 한국 제조업 부문의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주요국 중 가장 높아 공급망 취약성을 보유
 - 제조업 부문에 투입되는 산업용 원자재의 수입의존도는 제조업 강국인 G7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인 49.0%를 나타냄
 - 한국은 중국(29.3%), 일본(13.5%), 미국(10.1%), 대만(7.0%), 베트남(4.3%), 호주(3.8%)로부터 가장 많은 산업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으로 분석됨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자료: 뉴욕연준.
주: 포인트가 높을수록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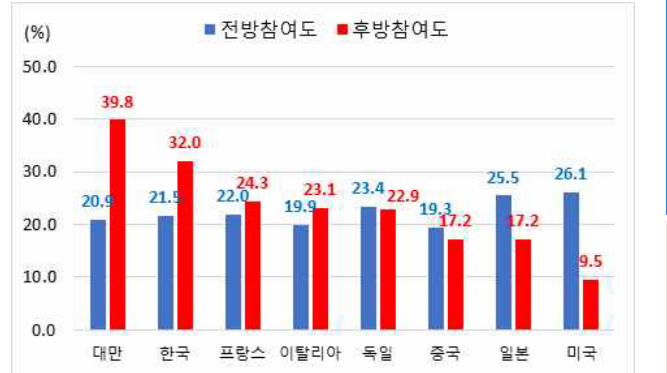
산업용 원자재 수입의존도³⁾



자료: Uncomtrade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22년 기준(2020년 한국, 2021년 일본).

- 특히, 글로벌 산업 밸류체인 상 한국은 후방참여도가 높은 국가군으로 분석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
 - 국내생산 중간재의 해외생산 투입 비중인 전방참여도는 2018년 기준 주요국 중 미국이 26.1%로 가장 높고, 일본 25.5%, 독일 23.4% 순임
 - 반면, 해외생산 중간재의 국내생산 투입 비중인 후방참여도는 대만 39.8%, 한국 32.0%로 가장 크며 이는 글로벌 분업구조를 통한 제조업 부문의 성장에 지속된 것을 의미함
- 글로벌 분업구조로 공급망이 구축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주요 제조업 강국과의 경쟁이 치열
 - 2022년 기준 전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은 중국(24.5%), 대만(21.7%), 한국(19.9%), 일본(12.6%) 순으로 이들 아시아 지역이 글로벌 생산능력에서 7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기차용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은 2022년 연간누적 사용량 기준 중국이 60.4%로 가장 높고 한국 23.7%, 일본 7.3% 순으로 형성됨

GVC 전방·후방 부가가치



자료: 뉴욕연준.
주: 포인트가 높을수록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반도체 생산능력 및 전기차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구분	반도체 (2022년)	배터리 (2022년)
미국	9.6	-
한국	19.9	23.7
중국	24.5	60.4
일본	12.6	7.3
대만	21.7	-
유럽연합(EU)	5.9	-

자료: SEMI, SNE Research.
주: 1) 반도체는 [지역별 생산능력 / 글로벌 총 생산능력]*100.
2) 배터리는 사용량 기준 글로벌 상위 10개사 평가.

3) ① Industrial supplies not elsewhere specified, ② Capital goods (except transport equipment),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 42 Parts and accessories, ③ 5 Transport equipment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 53 Parts and accessories 코드 합산 기준임. 코드 분류 <참조 3> 참고.

(4) 투자의 탈동조화(Decoupling)

●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투자대상국의 탈동조화가 심화하는 양상

-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 심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취약성 부각의 영향으로 경제의 분절화가 진행되면서 투자 역시 크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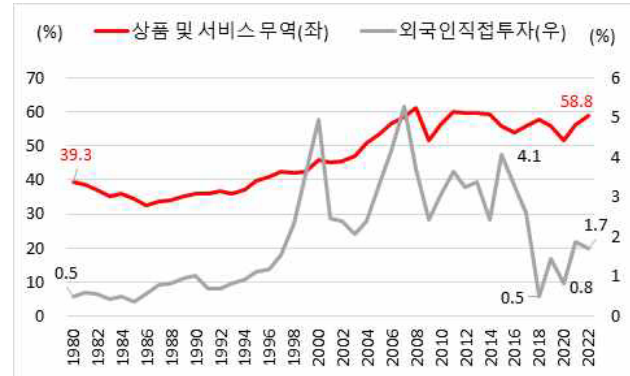
• 글로벌 GDP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1% 수준이었지만, 2018년 0.5%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1% 내외 수준을 기록함

•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비중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50% 후반 수준을 등록하고 있음

- 우방국 경제 블록화 및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프렌드 쇼어링, 리쇼어링 등의 투자가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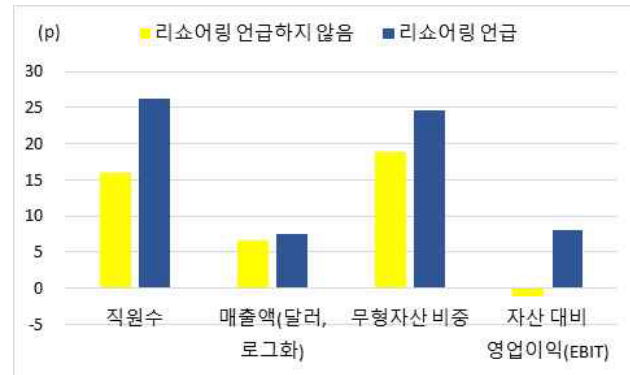
• 기업의 매출액, 수익성, 직원 수 등 규모가 클수록 자국기업의 본국 생산기지 유턴을 의미하는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분석됨

글로벌 GDP 대비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



자료 : IMF.

리쇼어링 관심이 높은기업의 특성



자료 : Compustat; Hassan and others (2019), IMF.

주 : 실적 발표에서 리쇼어링, 프렌드 쇼어링, 니어쇼어링을 언급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회사의 단순 평균.

• 최근에는 우방국 중심의 프렌드 쇼어링, 인접국가에 생산기지를 이동 하는 니어쇼어링 등이 활발하게 추진 중임

- 반도체 산업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코로나19 이후 탈동조화가 심화

•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전 반도체 부문의 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지수는 218p로 미국, 유럽, 아시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수는 2022년 4분기 55p까지 감소

• 이에 반해 유럽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수는 2022년 4분기 기준 192p로 가장 큰 수준이며, 아시아 163p, 미국 159p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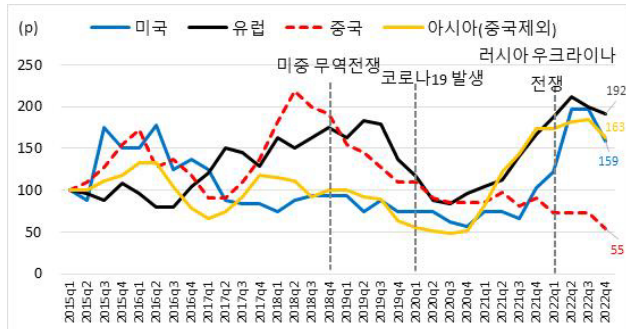
- 최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액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

• '22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 역대 최대인 304.5억 달러 (3,463건)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3.2%(12.1%) 증가한 수치임

• 제조업은 전년대비 149.4% 증가한 124.8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화공(482.5%)과 전기전자(135.6%)가 큰 폭으로 상승함

• 특히, 전기전자 산업 중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19.5억 달러, 전년대비 266.2% 증가)과 반도체 제조업(8.5억 달러, 전년대비 84.1% 증가)으로의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됨

반도체 산업 외국인직접투자(FDI)



자료 : fDi Markets, IMF.

주 : 1) 투자 건수, 4분기 이동 평균
2) 2015년 1분기=100.

3. 첨단전략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반도체-배터리 첨단전략산업의 산업적 가치는 높은 수준으로 최근 들어 업황, 기술경쟁 등 대외적인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 국내 반도체-배터리 기업 매출액으로 평가한 첨단전략산업의 국가 경제 비중 및 기여도는 2021년 하반기 이후 위축

• 글로벌 반도체 및 배터리 시장에서 매출액 상위 10위 내에 포함된 삼성전자(반도체 부문), SK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배터리 부문), 삼성 SDI, SK ON 총 5개 국내 기업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실질화함

• 국내총생산(GDP) 대비 반도체-배터리 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2020년 이후 7~10%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둔화 흐름과 함께 경제성장 기여도⁴⁾ 역시 '21년 2분기 2.1%p에서 '22년 4분기 Δ2.3%p까지 하락함

국내총생산(GDP) 대비 첨단전략산업 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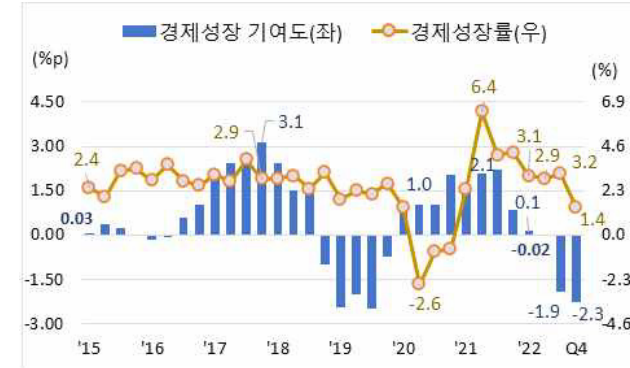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한국은행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반도체, 배터리 기업 매출액(분기)/명목 GDP(분기)]*100

첨단전략산업 기업 매출액의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 Bloomberg, 한국은행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 첨단전략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수요 및 공급 변수와 정책적 요인을 고려한 4변수 VAR(Vector Autoregressive Model)를 구축

• VAR 모형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반도체 및 이차전지 기업 매출액,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를 활용

• 반도체이차전지 기업 매출액은 삼성전자(반도체 부문), SK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배터리 부문), 삼성 SDI, SK ON 총 5개 국내 기업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여 실질화함

• 모든 변수는 로그 값을 적용하였고 단위근(Unit root)을 지닌 비정상적인(Non-stationary) 시계열 자료는 차분 후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로 변환하였으며, 분석 기간은 2015년 1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임

- 분석결과 국내 반도체 및 배터리 기업의 매출액이 10% 상승했을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0.248%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가 1p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04%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정책요인인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가 1p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089%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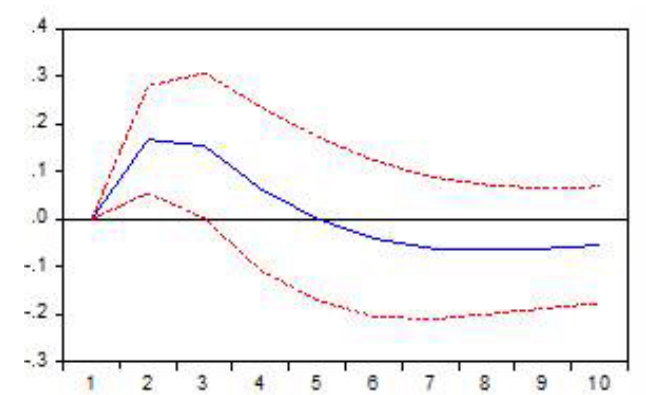
해당 변수 상승시 경제성장률 파급효과

구분	파급영향
수요요인	첨단전략산업 기업 매출액 0.248%p
공급요인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 -0.104%p
정책요인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 -0.089%p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평균적으로 3분기 후 파급영향 계수임.

첨단전략산업 기업 매출액의 경제성장 충격반응 함수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1) 가로축은 분기 수, 기업 매출액 표준편차 1단위 상승시 경제성장률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

2) 점선은 유의성(Significant) 구간, 점선은 90% 신뢰구간을 의미.

4) X_t 의 성장기여도(%p) = X_t 의성장기여율 $\times \sum_{n=1}^t X_n$ 의증감률, X_t 의 성장기여율(%) = $(X_t$ 의증감액) $\div \sum_{n=1}^t X_n$ 의증감액 $\times 100$.

<참고 1> Recursive VAR (Vector Autoregressive Model)모형

● 4변수 Recursive VAR(Vector Autoregressive Model)모형을 활용하여 수요 및 정책, 공급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충격 반응 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을 위해 축약형 방정식으로 변환 후 내생성과 외생성을 고려한 제약식(Lower triangle matrix) 구성

- 구조형(Structural Form) : $BY_t = \Gamma Y_{t-1} + e_t$, $e_t \sim iid(O, I_4)$

- 축약형(Reduced Form) : $Y_t = \Phi Y_{t-1} + u_t$, $\Phi = B^{-1}\Gamma, u_t = B^{-1}e_t$, $e_t \sim iid(O, \Omega)$

- 제약식(Lower triangle matrix) : $B = \begin{bmatrix} \beta_{11} & 0 & 0 & 0 \\ \beta_{21} & \beta_{22} & 0 & 0 \\ \beta_{31} & \beta_{32} & \beta_{33} & 0 \\ \beta_{41} & \beta_{42} & \beta_{43} & \beta_{44} \end{bmatrix}$

4. 대응전략 및 시사점

● 코로나19 이후 국제 분업 체계의 취약성이 부각하고,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고위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지속을 위한 노력이 절실

첫째, 자국 및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 반도체 산업은 신소재, 신구조, 신재료 등의 연구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히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의 밸류체인 구축 노력이 병행될 필요

- 또한, 핵심광물과 같은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 첨단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 중심지 조성, 국내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

-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재정 및 조세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시설 투자 등의 실효성 높은 정책이 지원되어야 함

둘째,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원화 및 자체 공급망 확보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 특정 국가 또는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특성 상 핵심 소재 부품 품목에 대한 수입지역 다변화 등을 통해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화를 도모

- 중장기적으로 핵심품목의 자립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및 전문인력 확보, 자체 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

-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는 주요국의 정책 변화 및 규제 현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다자 경제협력체 등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셋째, 국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지속을 위해서는 핵심장비 및 소재에 대한 기술개발뿐 아니라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의 원천인 기초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인력의 육성과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또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실증센터 확대 등을 통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꾀해야 함

- 연구개발(R&D) 핵심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관리 시스템 활성화를 검토하고 기술안보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를 강화

넷째, 산업 디지털 전환이 산업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디지털 신기술 확보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성장 및 산업경쟁력에 필수 요건으로 대두

- 이에 시스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차세대 핵심 기술·제품 선도를 위한 기업들의 육성 및 전략적 투자 강화가 필요

- 또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산업경쟁력에 필요한 인력 양성, 기술개발, 글로벌화 전략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도 필요

다섯째,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 확대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경쟁력이 열위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협력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시장점유율 확대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기업 간 전략적 인수합병(M&A) 등도 도모할 필요

<참고 2> 주요국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가. 미국

● (전기차·배터리)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배터리 등 첨단산업 제조업 자국내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물가 안정화를 명분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을 공표

•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추진하던 더 나은 재건법(BBBA; Build Back Better Act)의 규모를 축소하여 세수확대와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기본 골자로 하는 IRA를 제정

• 배터리(2차전지) 등 첨단·청정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 촉진 및 세액공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

-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춘 배터리 기업 등에는 미국 시장 내 점유율 확대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IRA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위한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 배터리 부품 조건 등을 살펴보면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광물을 추출·가공해야 하며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 부품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함

• 최근 발표한 세부지침에서는 보조금 혜택을 위해서는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면 되며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조립되어야 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주요 인센티브

인센티브명	인센티브 규모	주요 내용
청정제조 시설 투자세액공제	63억 달러	- 전기차배터리 및 관련 소재·부품 제조 시설을 미국 내 설치·확장 등을 할 경우 투자액의 6~30% 투자 세액공제 지급 *(예) 전기차배터리 생산 공장 미국내 건립·확장 시 세액 공제 혜택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160억 달러	-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배터리·태양광·풍력 등 첨단 부품과 핵심 광물 등에 대해 생산비용의 약 10% 세액공제 지급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75억 달러	- 북미내 최종조립, 우려국가 외국법인 배터리가 미장착된 친환경차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시 3,750달러, 광물 요건 충족시 3,750달러 지급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36억 달러	- 상업용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 또는 차량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지급
친환경 대형차량 보조금	10억 달러	- 기존 차량을 친환경 대형차량으로 교체 시 추가되는 비용, 친환경 대형차량 부품의 수리 비용 등에 보조금 지급
청정전력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	509억 달러(투자) 112억 달러(생산)	- 태양광·풍력 등 청정 전력생산 시설 투자 또는 해당 시설에서 전력 생산 시 세액공제 지급
첨단기술차량 제조시설 대출	30억 달러	- 전기·수소차 등 첨단기술 차량·부품 제조시설을 미국 내 설치·확장 시 에너지부 심사를 거쳐 저리 대출
에너지부 대출 보증	43억 달러	- 전기차 생산시설 등 첨단기술을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하는 투자시 에너지부 심사를 거쳐 대출 보증

자료 : 미국 의회예산처(CBO), 산업통상자원부 재인용.

● (반도체) 미국 중심의 안정적 공급망 및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지원책 마련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제조산업의 자국 내 생산 증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다수의 법안 발표

-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하원의 미국경쟁법(ACA; The America COMPETES Act) 등의 발효를 통해 자국 내 제조업 확대를 위한 투자,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 혁신역량 향상,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및 對중국 동맹체제 강화 등을 도모
- 특히 미국 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 확충을 위한 5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인센티브 지원 제시
- 기존 법안의 조정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 역량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투자 계획을 담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제정⁵⁾
-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R&D)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52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
- 지원 수혜기업이 중국 등 안보 위협 국가에 향후 10년간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마련

미국 반도체·과학법 투자 계획 주요 내용

재원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CHIPS for America Fund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 시설 확충	총 390억 달러 - '22년 : 190억 달러 - '23~'26년 : 매년 50억 달러
	민관협동 반도체 기술센터 설립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 지원 등	총 110억 달러 - '22년 : 50억 달러 - '23~'26년 : 매년 11~20억 달러
CHIPS for America Defense Fund	국방기술 적용, 반도체 인력양성 등을 위한 기술 네트워크 구축	총 20억 달러 - '23~'27년 : 매년 4억 달러
CHIPS for America 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 Innovation Fund	반도체, 통신 등 첨단기술 도입 보안 및 공급망 활동 지원	총 5억 달러 - '23~'27년 : 매년 1억 달러
CHIPS for America Workforce & Education Fund	반도체 인력 양성 (2025년까지 9만명 필요 예상)	총 2억 달러 - '23~'24년 : 매년 0.25억 달러 - '25~'27년 : 매년 0.5억 달러

자료 : 미국 상원(United States Senate).

나. 유럽연합(EU)

● (전기차·배터리)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유럽그린딜을 기반으로 첨단·청정산업 관련 세부 법안 및 규정 제안

- 유럽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관련 산업 등 경제·사회 전방위에 걸친 포괄적인 로드맵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으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 청정기술 선점, 친환경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등을 도모하는 계획도 포함됨
-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의 재정 지원,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투자 프레임워크 구축 등 투자 계획을 추진
- 유럽그린딜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제안하여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주요국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
-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 지원, 친환경 제품 제조역량 강화, 핵심원자재 확보,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촉진할 계획
- 더불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자국 친환경 산업 보조금 지급 정책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세부 법안 및 규정 제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공급망 불안정 이슈 및 주요국 정책 대응을 예고
- 넷제로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통해 친환경 제품의 EU 역내 제조역량 확대, 관련 기술 및 상품의 공급망 안보 강화를 모색
- 코로나19, 라우 사태 등으로 인해 목격된 에너지 위기 및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여 역내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 (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 추진
- 배터리 규정(Batteries Regulation)을 통해 전기차뿐 아니라 전자기기, 산업용 등 모든 종류의 배터리에 대한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정보를 수집·축적·공유하는 목적의 배터리 여권제도 필수화 예정

EU 유럽그린딜 및 관련 주요 정책 추진 내역

시기	내역
2019.12.11	유럽그린딜 발표
2020.1.14	유럽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및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 발표
2020.3.11	순환경제행동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제안
2020.7.8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및 수소 전략(EU Strategies for Energy System Integration and Hydrogen) 채택
2021.7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Fit-for-55) 발표
2022.3.10	배터리규정(Batteries Regulation) 의회 본회의 법안 채택
2022.5.18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REPowerEU 발표
2023.2.1	그린딜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제안
2023.3.16	넷제로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 발의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초안 발의

자료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반도체) 디지털 전환 촉진 및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 확보를 위한 생산 기반 투자 확대 등을 모색

- 유럽반도체법(The European Chips Act)을 발표하여 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방안 제시
- 단기적으로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주요국과 공급 협력을 강화하며, 중장기적으로 역내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 전반의 성장을 촉진하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선도역량을 보유하는 목표
- 차세대 반도체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기금을 조성하여 기업의 생산 및 혁신 활동을 지원
- 반도체 공급망 위기관리와 국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도 예정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최대 430억 유로 규모의 지원이 전망

다. 중국

- 중국은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의 내재화 및 기술확보를 목표로 첨단산업 육성을 도모
 - 중국 정부는 주요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견인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
 - 자국 반도체 기업의 선진화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목표로 국가적 차원의 자금공급,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을 시행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업을 육성해 내는 등 일정 수준의 목표 달성
 - 다만, 여전히 공급 능력 및 기술적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소재, 장비 등에 대한 대중제재 등에 따라 산업 역량 내재화 및 원천기술 개발 노력이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상황
 - 이에 따라 2021년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 등에서는 반도체를 국가 중점 과학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강조
 -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지속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에 집중
 - 중국 정부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등에서 전기차 분야를 집중 육성분야로 언급하고 있으며,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
 -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보호하는 외국인투자법 등을 통해 외국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모색

중국 14차 5개년 계획 반도체 및 전기차-배터리 육성 관련 추진사항

목표	분야	세부 내용
핵심기술 집중개발	집적회로	- 집적회로 설계 도구, 중점 장비 및 고순도 타겟 재료 등 핵심재료 연구개발 - 집적회로 선진공법과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IGBT), 초소형 정밀기계기 (MEMS) 등 특색 공법 돌파, 첨단 메모리 기술 업그레이드 - 탄화규소, 질화갈륨 등 광대역 밴드갭 반도체 발전
제조업 고도화	신에너지 자동차 및 커넥티드카	- 신에너지 자동차용 고안정성의 동력 배터리, 고효율의 전자설비, 고성능의 동력시스템 등 핵심기술 돌파 - 커넥티드카 기반기술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라인제어 새시 및 스마트 단말 등 핵심 부품의 연구개발 가속화

자료 : 중국 국무원,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재인용.



라. 일본

- 일본은 글로벌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시장에서 도태되어 간다는 위기의식 아래 첨단산업 기술격차 극복 및 제조기반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 투자 중심의 전략을 수립
 - 일본 정부의 예산 지원을 기반으로 동맹국 및 자국 민간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최첨단 반도체 기술 활용 양산체제 확립을 목표로 설정
 - 일본은 「반도체전략」(21.6), 「마일 반도체 협력 기본원칙」(22.5), 「차세대 반도체의 설계-제조 기반 확립에 관한 대책」(22.11)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반도체 제조기반의 자국화와 동맹국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최첨단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전략을 설정
 - 3,300억엔 규모의 연구개발 기금을 통해 일본 대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하는 Rapidus를 중심으로 2nm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의 내재화 및 양산을 모색
 - ※ Rapidus는 일본 8개 대기업(도요타, 소니, NTT, 소프트뱅크, 키옥시아, 덴소, NEC, 미쓰비시UFG은행)이 10억엔씩 공동출자하여 2022년 8월 설립.
 - 대만 TSMC 공장 일본 내 유치, 자국 기업의 제조기반 확대 등을 위한 지원책과 첨단 반도체 기술개발 거점으로 활용될 최첨단반도체기술센터 (Leading-edge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LSTC) 건립 등을 계획
 - 일본 정부는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향상과 제조기반 확보, 공급망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규모 지원책 마련
 - 2030년까지 자국 내 연간 150GWh의 제조기반 확립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3.4조엔(부품제조 1.3조엔, 전지제조 2.1조엔) 투자, 세계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연간 600GWh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원자재 확보 등을 위해 5년간 2.2조엔 투자를 포함하는 정책패키지 제시
 - 더불어 산학관 협력을 통한 차세대 전지 소재 및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 생산능력 확대 계획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배터리 수요창출을 위한 전기차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계획



<참고 3> BEC 코드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 분류 기준⁶⁾

BEC 분류	내역
1 Food and beverages	
11 Primary	
111 Mainly for industry	중간재
112 Mainly for household consumption	소비재
12 Processed	
121 Mainly for industry	중간재
122 Mainly for household consumption	소비재
<i>2 Industrial supplies not elsewhere specified</i>	
<i>21 Primary</i>	<i>중간재</i>
<i>22 Processed</i>	<i>중간재</i>
3 Fuels and lubricants	
31 Primary	중간재
32 Processed	
321 Motorspirit	-
322 Other	중간재
4 Capital goods (except transport equipment),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41 Capital goods (except transport equipment)	자본재
<i>42 Parts and accessories</i>	<i>중간재</i>
5 - Transport equipment and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51 Passenger motor vehicles	-
52 Other	
521 Industrial	자본재
522 Non-industrial	소비재
<i>53 Parts and accessories</i>	<i>중간재</i>
6 Consumer goods not elsewhere specified	
61 Durable	소비재
62 Semi-durable	소비재
63 Non-durable	소비재
7 - Goods not elsewhere specified	-

6) UN(2016), "Classification by Broad Economic Categories Rev.5.0."



Policy & Benefit

소부장 · R&D · 투자 정부 정책 소개



‘24년 산업부 예산안 11.2조원 편성... 첨단전략산업 · 소재부품기술개발 확대

[기사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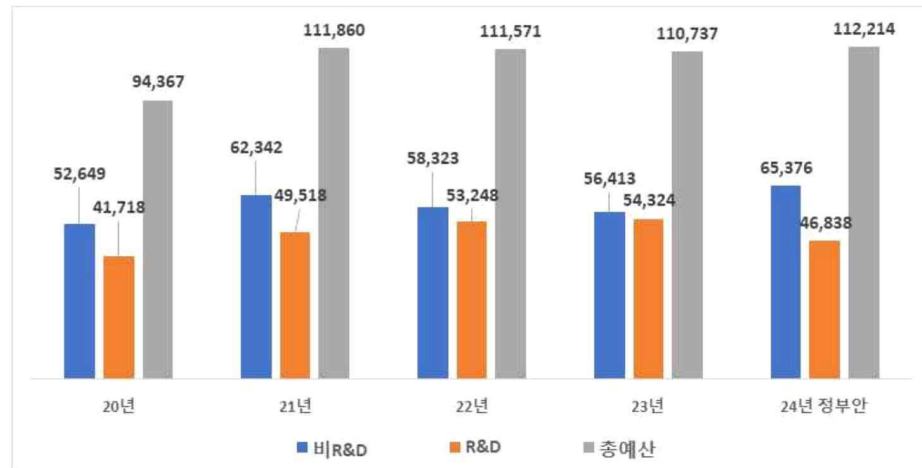
소재부품기술개발(R&D) 1.1조원 편성, 21.7%↑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예산안이 11조 2,214억 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관행적인 지원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을 구조 조정하되, 첨단산업 육성 등에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6대 첨단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을 중심으로 도전적 R&D를 확대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등을 강화합니다. 또한 기술혁신 용자, 특화 단지, 외국인 투자지원, 인력양성 등 전년 대비 2,215억 원 증가한 2조 1,603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소재부품기술개발(R&D)는 2023년 9,376억 원에서 1조 1,410억 원으로 21.7% 증가하며 소부장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본예산 기준, 억 원)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3.8) 보도자료

개방형 혁신을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드 조성

[기사 바로가기](#)

CVC펀드 800억원 이상 결성 목표

지난 7월 CVC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2025년까지 1조 원의 정책펀드와 7조 원의 민간주도 펀드 등 총 8조 원의 CVC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일환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에 대·중·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신산업 창출, 신시장 개척과 더불어 국내 산업혁신 생태계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합니다.

지난 3월 총 1,21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제1, 2호 펀드의 후속으로 총 800억 원 규모 이상 결성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주목적 투자대상이 되며, CVC 특성이 맞게 운용사 선정 시 펀드 운용능력 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기술력, 사업화 역량, 연결망(네트워크),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입니다. 해당 펀드의 제안서 접수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민관 합동 CVC 펀드 1·2호 결성식(23.07.)

모태펀드 확대 · 펀드 조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마중물 공급

[스마트업코리아 종합대책 기사 바로가기](#) [혁신성장펀드 기사 바로가기](#)

'24년 모태펀드 4,540억원 출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자금난에 직면한 창업기업에 투자 마중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대비 44.8% 증가한 4,540억원 규모의 예산을 중소기업모태조합에 출자하고, 1조 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코리아펀드' 등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매년 적정 수준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3~'27년 연평균 8조원 벤처펀드 생태계 조성에 노력을 가할 것을 밝혔습니다.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을 3대 분야를 중심으로 '24~'27년 간 총 2조원 이상 조성할 계획

모태펀드 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

혁신성장펀드 조성

그리고, 정부(0.3조원), 민간(2.1조원), 산업은행(0.6조원) 매칭을 통한 혁신성장펀드 3조원 조성을 계획합니다. 혁신성장펀드는 신산업을 육성 투자하는 '혁신산업' 자펀드와 기업 성장 중·후기 단계를 투자하는 '성장지원' 자펀드로 구성되어 각각 1.5조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정부 발의

기사 바로가기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등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일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며 출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며,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 세제지원		
출자단계	법인 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출자시 Max(벤처기업 출자금액, 벤처모펀드 투자금의 60%)의 5% + 증가분 3% 세액공제
	개인 투자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 10% 소득공제
출자단계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회수단계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 벤처기업 주식·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출처: 2023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23.07, 기재부)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 세제 혜택 강화

기사 바로가기 

바이오의약품 세액공제 확대, 시설투자 25~35% R&D 30~50%

8월 29일, 2024년도 예산안 발표에 이어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국가전략기술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조특법에서는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하는 등 더 높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가 안보 및 경제 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중전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하던 일부 바이오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기술을 추가하였습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조특법에서는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 관련 기술을 육성하는 R&D 활동과 인력 및 시설 투자에 세제 혜택 제공

- 13개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보안, 콘텐츠, 차세대전자 정보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부장, 탄소중립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신성장·원천기술 포함

● 국가전략기술

국가 안보 및 경제 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정하여, 관련 기술을 육성하는 R&D 활동과 인력 및 시설 투자에 세제 혜택 제공

- 조특법의 7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더불어,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하며 세제 혜택 범위를 높이며, 국가성장에 필요한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연구개발 청사진,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기사 바로가기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9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분야인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모빌리티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12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24년 정부R&D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을 '23년(4.7조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으로 확대 하였으며, 특히 이차전지(19.7%↑), 반도체(5.5%↑) 분야에서 주력 산업 경쟁력 유지는 물론 전고체 배터리, AI반도체 등 미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부의 투자 증가세에 따른 기술육성전략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전략로드맵에서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와 길목기술을 설정하였고, 연구개발 정책·투자·평가 전과정에 나침반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1) - 기술패권 경쟁 분야 주요 임무			
전략기술	세부 중점기술	주요 임무 (일부)	
이차전지	리튬이온전지/배터리 모듈 시스템, 차세대 이차전지 제어용·제빙용	경쟁국 추격을 압도하는 리튬이온전지 최고성능화 (이론적 한계 수준(360Wh/kg) 에너지밀도 구현), 초성능-리튬금속 / 초안전-반·전고체 / 광물자립-나트륨이온 상용급 기술 확보	
반도체	고집적·저방열 메모리, 고집적·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패키징, 차세대 센서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 저전력·고효율 ' 시 반도체(10TFLOPS/W 이상), 차세대 메모리 소자, 이종집적 칩렛 패키징, 극한환경용 전원자립형 센서 개발	
디스플레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소재 부용 장비, 프리즘 디스플레이 소재 부용 장비	초고성능(저전력·고해상도·고밝기) 통한 글로벌 경쟁력 1위 탈환 , 마이크로LED 조기상용화 를 위한 고속·고효율 생산기술 확보	
첨단 모빌리티	자율주행시스템, 전기·수소차	'27년 Lv.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를 위한 고성능 인공지능 (현재 대비 10배 수준(1,000TOPS)) 및 보안·안전성 관련 표준·인증 선점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회는 위기에서 온다 변화에 대응하며 성장하는 지애펀벤처투자

지애펀벤처투자는 초기 스타트업 투자부터 성장단계 스케일업 투자까지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다. 2000년 설립 이후 꾸준히 핀테크, 소프트웨어, 코스메틱, 소·부·장, 바이오 등 투자에 성공해 투자 기업과 함께 성장해 기업 가치를 높여 왔다. 최근에는 대외 상황에 대응하며 딥테크, ICT-테크,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다가올 미래 산업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중이다. 현재 3500억 원대의 누적 운용펀드를 운용하였고, 10개 이상의 결성 펀드로 여러 기업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또한, 지애펀벤처투자는 세컨더리 부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운용 규모에 비해 우수한 운용 능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신규 세컨더리펀드 결성의 물꼬를 터 투자 역량을 늘려 갈 지애펀벤처투자에 대해 알아보자.

작은 보람에서 시작된 투자의 길

지애펀벤처투자의 홍충희 대표 이사는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첫 사회생활은 은행에서 시작했으며 매일 반복되는 업무보다는 활발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는 증권회사가 적성에 맞다고 판단하여 이직하게 된다. 증권회사에서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의 기업 금융과 IPO 업무를 주로 맡았으며, 중소기업이 성장과 자금 조달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껴 벤처캐피탈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후 이것이 발판이 되어 2000년 3월 벤처캐피탈을 창업하였고, IPO 업무에 관여했던 두 회사가 주주가 된다.

대표는 곧 기업의 길잡이

홍충희 대표이사는 개인이 꾸는 꿈과 조직이 꾸는 꿈의 방향이 같아 지도록 하는 것이 대표의 역할이라고 한다. 개인과 조직 중 어느 한쪽이라도 맹목적으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닌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꿈을 맞추기 위해 유연한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하며 자신의 경영 철학을 밝혔다. 벤처캐피탈은 사람이 전부인 조직이다. 직원 간의 상하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고 꿈을 공유하는 동안 같은 크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과 유연함을 직원들이 향유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업계 선배로서나 대표 이사로서 조언하거나 책임감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앞장서기도 한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다른 금융 업계보다 산업 규모가 좁은 탓에 펀드 운용이나 투자의 면에서는 서로가 경쟁 관계에 놓이기도 하지만 서로 친밀하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지니며 언제든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단단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

벤처캐피탈 업계는 타 분야에 비해 이직이나 창업이 자유로운 편이라 업계 자체의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업계 특성상 홍충희 대표 이사는 자신의 경영철학을 더욱 견고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자유롭게 투자처를 발굴하고 투자할 만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니어나 주니어를 불문하고 동등한 접근 경로와 의사 결정 경로를 가지게 한다. 하지만 대형사에 비해 회사가 시스템적인 부분보다 인적 베이스의 시스템에 의지한다는 중소형 벤처캐피탈의 현실을 깨기 위해 이직에 대한 대비나 기업 내부의 시스템적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믿음과 절심함이 만들어 낸 성장

지애펀벤처투자는 23년의 역사를 가진 벤처캐피탈인 만큼 그동안 다사다난했다며 홍충희 대표 이사는 지난날을 떠올렸다. 2012년 2월에 최대 주주가 여러 이유로 지애펀벤처투자를 청산하거나 매각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당시 2대 주주였던 국순당이 최대 주주로 손바뀜하면서 현재까지 그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 이후 현 대주주인 국순당은 홍충희 대표 이사의 해안과 성공 가능성을 믿어 주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었다. 이런 대주주의 믿음을 발판 삼아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중장기 회수 사이클뿐만 아니라 단기 투자 회수에도 신경을 많이 써 수익의 밸런스를 맞추려 노력해 왔다. 그런 노력 덕분에 지애펀벤처투자는 꾸준히 흑자를 내며 성장해 왔고, 여기에는 홍충희 대표이사의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절실함과 절실함을 이루기 위한 선구안과 리스크 관리도 한몫을 했다고 분석했다.

성장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애펀벤처투자는 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친 투자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성장 단계 및 성숙 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도 많이 집행하고 있다. 홍충희 대표 이사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처럼 산업 분야에서도 치우침이 없이 투자나 회수 기간에도 치우침이 없이 분산해서 투자하고자 한다. 아직 초기 단계인 스타트업이나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 모두 산업, 사람, 기술에 대한 모든 부분을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한다. 홍충희 대표 이사는 투자를 하기 전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지를 고려하며 분석한다고 하였다. 이는 투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상 피할 수 없는 생각이다. 그렇다 보니 산업이 얼마나 크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환경에 맞춰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기업이 가진 꿈의 크기와 능력을 본다. 그 후 지애펀벤처투자가 추구하는 딥테크 분야의 기본 중 기본인 기술 경쟁력을 고려한다고 한다.

High-Risk, High-Return,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는 곧 수익으로

홍충희 대표이사는 수익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벤처투자를 하면서 피투자사가 계속 기업으로서 우상향 기업 성장을 원하는 것처럼 지애펀벤처투자 또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통해 수익을 돌려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며 ‘최소한 손실은 보지 말자’라는 원칙으로 투자



를 집행하고 있다. 물론 벤처투자 속성상 모든 투자가 성공할 수는 없지만 성공한 투자를 통해 실패한 투자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를 계속 지향하였고 그것이 계속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

지엔텍벤처투자는 바이오 분야의 투자 비중은 줄이고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등의 투자 비중을 늘렸다. 이를 두고 홍총희 대표는 현재 고금리 지속과 국제 정서 등 대외적인 경제 환경이 좋지 않고, 21년까지 풍부한 유동성에 기인하여 주식시장이 고평가 국면을 유지해 오다 지금은 조정 중에 있지만 앞으로 당분간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런 전제하에 바이오 분야 또한 조정 국면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투자 비중을 조절하며 대외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며 선도하다

벤처캐피탈의 회수 비중 중 IPO를 통한 회수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소위 트렌디한 산업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소위 전문 분야를 추구하는 벤처캐피탈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전문 분야 영역을 구축하는 벤처캐피탈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엔텍벤처 투자도 딥테크 기반의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홍총희 대표 이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회사 설립 이후 세컨더리 분야의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해 온 지엔텍벤처투자는 계속해서 세컨더리 분야를 특화해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끈끈한 믿음 속에 성장하는 지엔텍벤처투자

홍총희 대표 이사는 지엔텍벤처투자의 차별점으로 두터운 믿음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회사 대주주에게는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 펀드출자자에게는 절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펀드, 펀드 청산 시 수익을 돌려준다는 믿음, 리스크 관리나 투자집행도 잘해서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믿음, 직원들에게는 동등한 권한을 가진 한 식구라는 믿음, 노력하고 성과를 낸 만큼 투명하게 성과를 배분하는 회사라는 믿음, 직원들의 성장도 회사의 성장만큼 중요하다는 베이스를 가진 회사라는 믿음이 다른 벤처투자

기업보다 월등히 자신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있는 것이다. 지엔텍 벤처투자는 이렇듯 믿음으로 탄탄한 성장 궤도를 밟아 왔다.

지속가능한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홍총희 대표 이사는 운용 펀드를 200억에서 3천억으로 끌어올려 회사의 규모를 부풀려 왔다. 하지만 회사의 크기나 펀드 운용 규모의 크기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닌 알차고 내실 있게 운용되는 회사의 능력으로 평가받기를 바랐다. 또한 대주주, 출자자, 직원들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며 피투자 기업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회사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삶과 경영 (미니인터뷰)

1.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꼭 하고 싶은 직업 세 가지가 오케스트라 지휘자, 야구 감독, 벤처캐피탈리스트라고 합니다. 세 직업의 공통점은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고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하고 혼자서 아닌 같이 이뤄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투자라는 일이 매력적이며 성공한 투자 사례를 남겼을 때 거기서 오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 같습니다. 운 좋게 기업에 발을 담글 수 있어서 매 순간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가 배역을 맡아 연기를 하면 맡은 배역의 수만큼 여러 가지 인생을 사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피투자 기업에 투자 하게 되면 '그 회사와 피를 섞는다.'란 표현을 하는데, 피투자 기업들 수만큼의 대리 인생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긴 시간 동안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해 준 원동력은?

저는 가진 능력과 실력에 비해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입니다. 주위에서 머리를 빌려주거나 영감을 주는 업계 선, 후배 동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업계도 참여자가 점점 많아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타 금융 분야에 비해 교류도 많고 잘 묻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건 거기에 반드시 스승이 있고 거기서 얻은 정보와 지식, 영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3. 경영인으로서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은?

전문 투자 분야 영역을 구축하는 부분을 더 공부를 많이 해서 그간의 경험을 잘 활용해서 투자를 더 잘하는 회사, 직원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회사 체계를 갖추고 직원들의 성과에 대해 더 합리적으로 배분해 줄 수 있는 회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대주주나 출자자들에게 더 인정받는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4.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점은?

긴 호흡을 가지고 벤처캐피탈리스트로서의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미국은 경험이 풍부한 50대 이상의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수도 많고 현장에서 인정받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성공을 도모하기보다 점차 내공을 쌓아 나가면서 투자에 대한 축적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 벤처시장과 벤처캐피탈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단기간에 성공한 벤처캐피탈리스트들도 많은 편입니다. 향후 시장 환경이 급격한 시장 성장에 기인하여 큰 투자 성공을 이끄는 확률이 과거보다 줄어들 것입니다. 근원적인 회사를 보는 안목, 성실한 공부와 발로 뛰는 노력을 통해 시장 기반이 아닌 개별 기업 기반의 성공 사례를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주변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의 기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단기간의 수익보다 피투자 기업의 지원과 성공에 큰 만족을 느끼는 철학을 가진 벤처캐피탈리스트가 되길 바랍니다.





지애펍벤처투자는 여러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며 성장해 왔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성장 전 주기에 걸친 기업들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장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산업과 대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트렌드를 읽으려 노력해 온 홍충희 대표 이사의 노력과 이를 믿고 잘 따라준 팀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산업에서 힘이 되어준 만큼 앞으로도 투자가 필요하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성장의 발판이 되어 변화의 선두에 서기를 바란다.



CEO PROFILE

대표이사 홍충희 약력

- 1994.02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94.03~1995.05 한미은행 채권발행부
- 1995.07~2000.04 현대증권 IPO팀
- 2000.04~ 지애펍벤처투자 설립



회사 연혁

- 2022 • 신한-지애펍스마트혁신펀드 결성
- 2020 • 지애펍로드스톤제1호
•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청산
- 2019 • IBKC-지애펍세컨더리투자조합 청산
- 2018 • AUM 3,000억원 돌파
• 지애펍빅점프투자조합 결성
• 지애펍로드스톤제1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결성
- 2017 • AUM 2,000억원 돌파
• 지애펍3호벤처투자조합 결성
• 지애펍2호벤처투자조합 청산
- 2016 • AUM 1,000억원 돌파
• A&F미래성장투자조합 결성
• 지애펍명장세컨더리투자조합 결성
- 2015 • 경남-지애펍창조경제혁신펀드 결성
- 2013 • IBKC-지애펍세컨더리투자조합 결성
- 2012 • 홍충희 대표이사 취임
• (주)국순당, 지애펍벤처투자(주) 인수
- 2011 • 지애펍2호벤처투자조합 결성
- 2010 • 지애펍1호벤처투자조합 청산
- 2006 • 지애펍1호벤처투자조합 결성
- 2005 • 본점 이전 (삼성동)
- 2000 • 설립



기술을 완성하는 팍리스 글로벌테크놀로지 디스플레이의 미래를 여는 강소기업

현대인이라면 디스플레이와 떨어져 생활할 수 없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늘 TV, 휴대폰, 컴퓨터의 디스플레이와 눈을 마주하고 있다. 이처럼 디스플레이 기술은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깝게 있고, 생활 패턴을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디스플레이의 핵심은 패널과 백라이트로 나뉜다. 오늘 소개하는 글로벌테크놀로지는 백라이트 기술의 미래를 열어가는 팍리스 기업이다. '기술을 완성하는 기술'을 모토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테크놀로지. Mini Led Driver IC 개발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글로벌테크놀로지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 상용화를 앞당길 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글로벌테크놀로지가 열어가는 미래 디스플레이 세상으로 들어가 본다.

무역회사에서 팍리스 기업으로 변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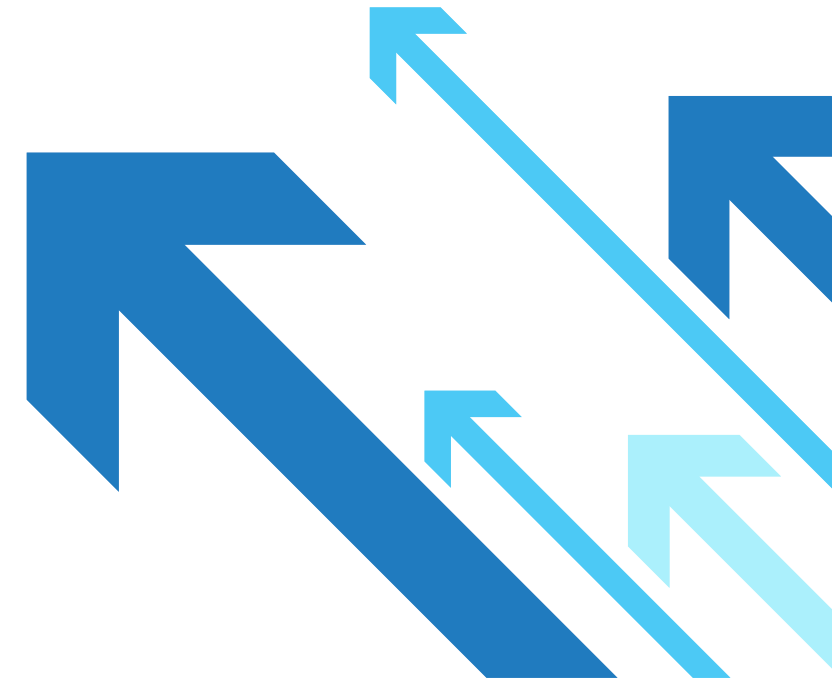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출신인 김민선 대표는 2013년 솔루션코리아 컴퓨터 창업과 함께 경영자의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엔지니어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16년 동안 솔루션코리아컴퍼니를 경영하면서도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이 무엇인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던 그에게 마침내 기회가 왔다. 김민선 대표는 A 전자에서 Mini LED 타입의 TV 개발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듣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기회라고 판단했다. A 전자가 새로운 타입의 TV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PM(디지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콘셉트의 AM(아날로그) 방식의 Mini LED Driver IC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A 전자의 요구를 충족할 부품이 마땅치 않았다. 김민선 대표는 이 새로운 방식의 Mini LED Driver IC 개발을 목표로 글로벌테크놀로지를 창업했다.

스티브 잡스 발자국을 따라 걷기 #2

김민선 대표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제일 좋아한다. "그는 항상 새로운 것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없던 것을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것에 혁신적인 디자인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제품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라며 스티브 잡스를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선 대표는 스티브 잡스가 걸었던 길을 따라가려 한다. 글로벌테크놀로지는 제품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고객 감동을 위해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지 끊임없이 연구한다. 애플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글로벌테크놀로지가 디스플레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김민선 대표의 꿈이다. 김민선 대표는 '기술을 완성하는 기술'이라는 모토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첨단 제품 속에 담긴 새로운 기술이 소비자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야 가능하다. 뛰어난 디스플레이가 첨단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다.

선명한 화질을 완성하는 Mini LED Driver IC #3

디스플레이의 생명은 화질이다. 화질은 디스플레이 개발 기술 발전과 함께 8K가 일반화될 정도로 발전했다. 화질 향상의 열쇠는 백라이트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LED TV는 LED를 백라이트 광원으로 사용하고, Mini LED TV는 Mini LED를 백라이트 광원으로 사용한다. Mini LED는 LED보다 체적 기준으로 비교하면 40분의 1 수준이다. 그만큼 Mini LED는 LED보다 광학거리(높이)가 대폭 줄어들기 때



문에 제품의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다. 또한 Mini LED는 LED보다 면적이 절반에서 10분의 1 정도로 좁아서 미세한 밝기 제어가 가능해 화질과 명암 재현 영역이 훨씬 넓다. Mini LED가 가진 장점 덕분에 얇은 디스플레이에서 우수한 화질(4K 및 8K 수준)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흰색 반도체의 마법 같은 효과 #4

반도체를 떠올리면 대부분 검은색에 흰색 글자로 인쇄된 모양을 연상할 것이다. 그런데 글로벌테크놀로지의 대표 제품인 Mini LED Driver IC는 특이하게도 흰색이다. 무슨 이유로 글로벌테크놀로지는 흰색 반도체를 만든 것일까?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검은색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Mini LED는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광원이므로 BLU(Back Light Unit)의 전면부에서 발광한다. Mini LED Driver IC는 Mini LED들을 채널 단위로 묶어서 밝기를 제어하는데, Mini LED가 위치한 보드의 앞면에 같이 있어야 보드 설계가 단순해진다. 그래야 재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 Mini LED Driver IC가 일반적인 IC와 같은 검은색이면 Mini LED의 빛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백라이트 광 효율이 뚝 떨어진다. 반대로 IC 색깔을 흰색으로 하면 광 효율이 높아지게 되어 효과적인 밝기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글로벌테크놀로지 주력 제품인 Mini LED Driver IC를 흰색으로 제조한 이유다.

미니를 넘어 마이크로 세계로 간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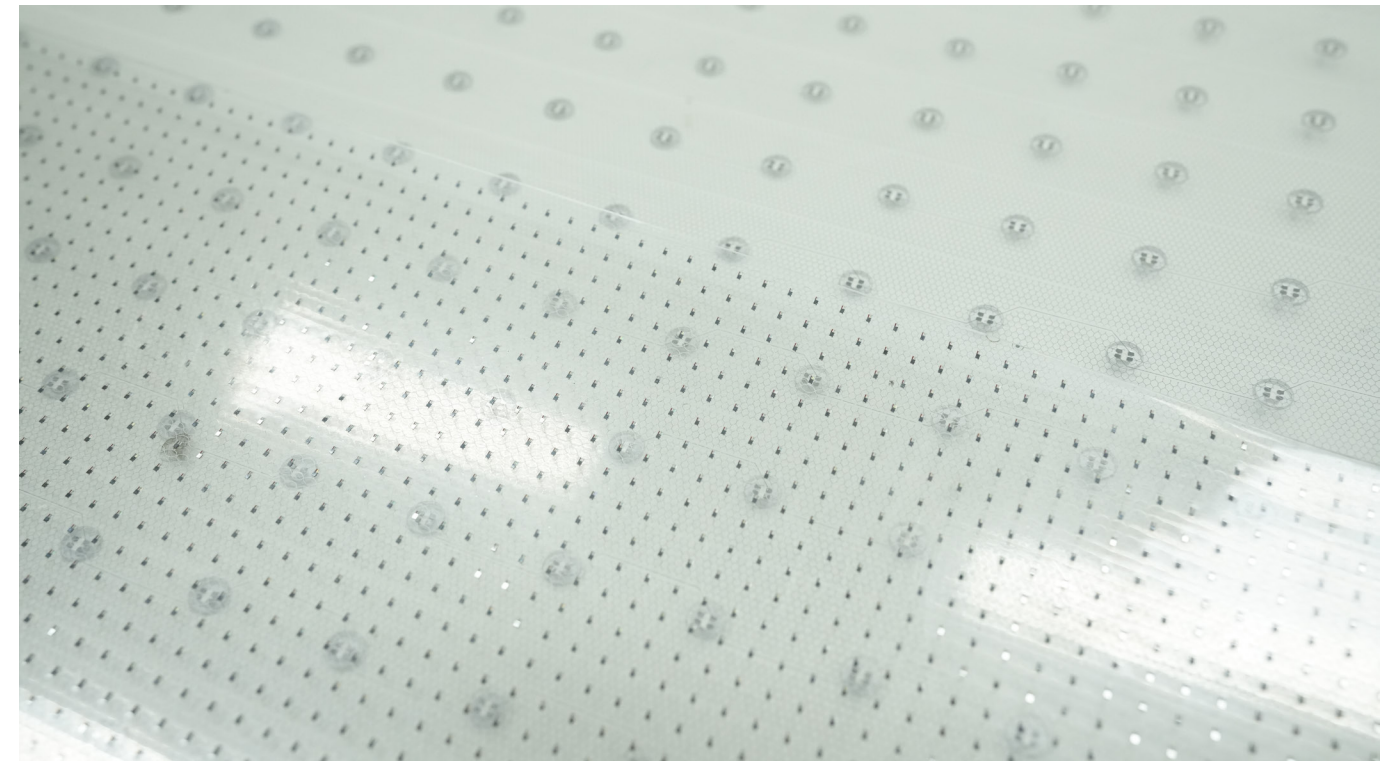
거실에 걸려 있는 TV 크기가 부를 상징하는 시대가 있었다. 지금도 대량 생산하기 힘든 크기의 TV 가격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이렇듯 디스플레이 기술은 대화면과 고화질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대화면 추세는 기존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장분석기관인 OMDIA의 전망에 의하면 디스플레이 패널의 평균 크기가 2022년 50.9인치에서 2026년 55.1인치로 커진다고 한다. Mini LED 관점에서 화면이 넓어지면 백라이트 광원인 Mini LED 수량 역시 늘어난다. 글로벌테크놀로지는 증가하는 Mini LED의 제어 효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재료비를 절감해야만 하는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글로벌테크놀로지는 광량 미세 제어, 소비 전력 저감을 포함한 고효율 제어기술과 함께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콘셉트 제품개발에 이미 착수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2023년 내에 신뢰성 검증을 마치고 출시할 계획이다.

다른 한 축의 트렌드인 고화질에 대해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을 받고 있는 Micro LED의 상용화가 관건이다. 현재 Micro LED TV는 대량 전자 기술의 허들과 모듈 배치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상용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글로벌테크놀로지는 기존 기술 구현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로 접근하고 있다. 현재는 65인치 디스플레이 구현을

목표로 Micro LED Module 선형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4년 신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은 배신하지 않는다 #6

글로벌테크놀로지는 창립 5주년이 채 안 된 신생 벤처 기업이다. 대부분의 벤처 기업이 그렇듯 창립 초기 판로를 찾지 못하면 위기를 겪게 마련이다. 글로벌테크놀로지도 창립 초기에 회사의 성패를 좌우할 위기가 있었다. A 전자가 진행하는 Mini LED TV 개발에 참여한 글로벌테크놀로지는 든든한 협력자의 지원으로 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하지만 설립 1년 차 신생 벤처에 자사의 전략 제품의 성패를 맡길 수 없다는 A 전자 경영진 판단으로 하루아침에 판로를 잃고 말았다.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다행히 A 전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B 전자로부터 글로벌테크놀로지의 기술을 채택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때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B 전자 신제품 출시 후 A 전자의 태도도 바뀌었다. A 전자는 글로벌테크놀로지의 기술을 인정하고 차기 모델부터 글로벌테크놀로지 제품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김민선 대표가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다. “기술은 배신하지 않는다” 김민선 대표가 위기의 순간에도 기술의 힘을 믿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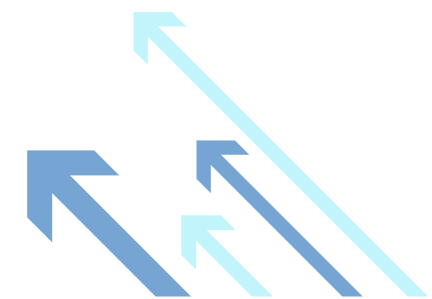


미래 디스플레이를 책임지는 신기술 상용화 #7

글로벌테크놀로지의 주력 제품인 Mini LED Driver IC 전망은 여전히 밝다. 향후 3년 동안의 납품 물량을 확보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Mini LED Driver IC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은 글로벌테크놀로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주요 동력이다. 글로벌테크놀로지는 세 방향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첫째는 Micro LED Module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글로벌테크놀로지는 2024년 65인치 Micro LED Module 시제품 출시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둘째는 투명 디스플레이 모듈이다. 일본의 5대 건축사 중 하나인 고객사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투명도를 높이고 해상도도 올려야 하는 시장의 이율배반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할 기술개발이 절실하다. 글로벌테크놀로지는 투명도 90%(기존 대비 25% 개선), 화질 256계조(기존 대비 200% 개선)의 투명 디스플레이 개발을 완료했다. 이는 시장의 요구에 어느 정도 근접한 것으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다. 마지막은 자동차용 아날로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다. 전기차 시대 도래와 함께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내외장 디스플레이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국내 굴지의 자동차 기업 공급망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한 글로벌테크놀로지는 2024년이 자동차 전장 사업 참여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팹리스 No1. 지향하는 기술 강소기업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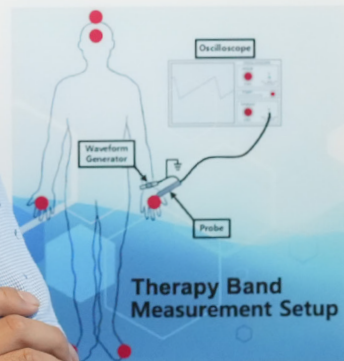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산 시설을 갖지 않고 있는 반도체 설계회사를 말한다. 글로벌테크놀로지 역시 팹리스 기업이지만 어느 팹리스와는 결을 달리한다. 글로벌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설계 기술을 기본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광학기술까지 확보하고 있는 기술 강소기업이다.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시스템 보드 설계와 디스플레이 광학계 설계까지 고객 맞춤형 토탈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테크놀로지가 2023년 9월 현재 확보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특허는 국내에 30건, 해외에는 31건이다. 국내 특허는 등록 13건, 출원 17건이고, 해외는 등록 4건, 출원 27건이다. 글로벌테크놀로지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자산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미세전류테라피
손상된 세포의 재생을
회복시킬뿐 아니라
회복에도 도움을 주
유도합니다.

40KHz의 미세전류가 체내에서
400,000회/sec 진동하며 체내로 전달됩니다.



미세전류기 테라피워치를 착용한
Oscilloscope를 이용해서
파형과 주파수를 측정할 결과
손목에 착용한 테라피워치의 미세전
머리, 이마,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모두 같은 파형과 주파수로 도달

Use smartwatch Medical device

ness

는 개인용 건강관리 웰니스제품입니다.
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제, 정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에 도전

이큐어의 알츠하이머 치료 전자약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병, 알츠하이머. 주변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알츠하이머는 아직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서 더욱 두려움을 갖게 한다. 자신을 잃어 가는 병 알츠하이머. 이큐어가 불치병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 정복에 나섰다. 이큐어 조동식 대표는 알츠하이머가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고 한다. 이큐어가 개발한 전자약 테라피워치는 알츠하이머 치료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류에게 불치병은 없다. 다만 치료법을 모를 뿐이다. 이큐어의 알츠하이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창업 #1

이큐어 창업은 암 환자에 대한 연민에서 시작되었다. 이큐어 조동식 대표는 대학 졸업 후 전기 관련 엔지니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엔지니어로서의 삶은 그리 길지 않았다. 30대부터 시작한 명상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인체 전기를 느끼기 시작할 무렵 경주자연치유센터 암 전문 병원으로 직장을 옮겨 10년 동안 근무했다. 그는 암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많은 환자가 암으로 고통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실감했다. 그리고 과연 암은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암 정복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암 세포는 투명망토를 두르고 있다. 이 투명망토가 외부 물질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어서 항암제 등의 약물로부터 암세포를 보호한다. 조동식 대표는 투명망토를 뚫을 수만 있다면 암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투명망토를 뚫을 방법으로 저주파 자극에 주목하고 저주파 자극을 활용한 암 치료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 이큐어를 창업했다.

하쿠나 마타타, 모든 것은 긍정에서 시작 #2

하쿠나마타타는 애니메이션 영화 <라이언 킹>에서 티몬이 의기소침해 있는 심바를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이다. 스와힐리어인 하쿠나마타타를 우리 말로 번역하면 '문제 없다', '모든 것은 잘 될 거야'라는 뜻이다. 이큐어 조동식 대표는 하쿠나마타타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몸에는 긍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정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회사 경영에도 자신의 좌우명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조동식 대표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긍정 마인드와 함께 정신의 힘을 믿으라고 말한다. 의료기기 개발 회사의 대표답게 질병에 대하는 태도 역시 긍정적이다. 인간이 육체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믿는 그는 질병 극복 방법을 찾는 것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동식 대표는 로알 라이프 박사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고 있다. 로알 라이프 박사는 20세기 초 종양과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라이프 조파수 발생기를 개발한 과학자다. 로알 라이프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치료법을 말기 암 환자 16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했는데 14명이 3개월 내에 완치된 사례도 있다. 조동식 대표는 라이프 박사의 기기보다 더 간편하고 안정적인 손목 착용형 전자약으로 현대의학에서 불치병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제약과 전자약이 같이 사용되는 형태로 계속 연구 중이다.

면역력을 키우는 수정 파동 #3

이큐어의 주력 제품은 수정주열기와 수정매트다. 이큐어 제품의 효과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어떤 물질인지 알아야 한다. 수정은 수억 년 동안 우주 에너지를 받은 바닷물이 지각 변동으로 땅속으로 들어가 형성된 광물질이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니 몸과 수정이 만나면 공명한다. 이큐어 조동식 대표는 자신이 처음 수정주열기를 손에 잡았을 때 손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느낌과 함께 폐의 폐포가 터지는 느낌을 받은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수정주열기로 자신의 몸을 마사지하자 하루 만에 감기가 감쪽같이 나았다. 수정주열기가 인체에 열과 파동을 불어넣어 체온 상승과 면역력이 증가 되어 감기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이겨낸 것이다. 수정매트를 사용하고 난 후 경험은 더욱 놀랍다. 수정매트를 깔고 잠을 자면 수정의 파동이 자는 동안 우리 몸에 침을 맞고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조동식 대표는 무좀이 좀처럼 낫지 않아 고생했는데 수정매트 사용 후 1년쯤 되자 무좀이 깨끗이 사라졌다. 수액은 우리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한다. 수액이 흐르는 곳에서 잠을 자면 숙면이 어렵고 피로가 누적된다. 수정매트는 수액이 뱀의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는데 수정매트에 어싱장치를 하면 땅 위에서 자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큐어 제품을 사용한 사람은 조동식 대표와 같은 효능을 체험한다. 좋은 제품은 입소문을 타기 마련이다. 수정주열주입기와 수정매트는 소비자들의 입을 통해 효능이 널리 퍼지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





통증 완화에서 알츠하이머 치료까지, 테라피워치 #4

이큐어 자체 기술로 개발한 테라피워치는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와 더불어 뇌혈관 질환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다. 아직 타허가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개발 과정과 사용성 평가, 전임상 연구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창업 후 암 치료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조동식 대표는 고질적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기 순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열심히 명상하고 호흡했지만 단전에서 보낸 기운이 관절염이 있는 무릎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발견한 전기조합의 한 포인트(A라고 지칭하겠음)가 그의 20년 고질병인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낮게 해 주었다. 다시 설명해드리면, A의 전기 한포인트를 손목에 착용했더니 몇 분 후 무릎에서 번개 같은 느낌이 났고 그 뒤 단전에서 보낸 기운이 무릎을 통과하여 발로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 이후로 점점 무릎 상태는 좋아졌다. 그뿐 아니라 뇌경색, 방광, 불면증을 차례로 낮게 해주었다.

조동식 대표는 전기조합의 한포인트 A를 발생시키는 기기를 만들어 암 환자에게까지 사용성 테스트를 해보았다.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뇌의 명반응이었다. 자신의 뇌경색도 해결해 주었으니 뇌 질환에 먼저 적용해 보기로 했다. 알츠하이머 전임상을 실시하여 베타아밀로이드 제거 효과를 확인했다.

이큐어는 기대 이상의 효과에 자신감을 가지고 제품화에 나서 테라피워치라는 품목명으로 통증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받았다. 올해 4월 30일에는 식약처로부터 경도인지장애 탐색임상 승인을 받고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탐색임상 실시하고 있다. (임상 제목: 약물치료중인 알츠하이머형 경도인지장애환자대상으로 탐색임상)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부작용없고 제약과 같이 사용 할 수 있는, 테라피워치 #5

이큐어에서 개발한 테라피워치는 1차 뇌질환 개선 의료기기(전자약)로써 전임상에서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베타-아미노이드 감소 효과로 경도인지장애 탐색 임상 중이며, 지금까지 200대 판매에 부작용 제로이며 테라피워치가 제약(도네페질 계열)과 함께 처방되는 전자약(의료기기)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조동식 대표는 스스로 인체전기를 느끼는 감각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전자약 개발에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큐어에서 개발한 테라피워치는 특허 출원 8년 만에 올 10월 특허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허등록 후 그동안의 의료기기 제작 노하우를 기반으로 리뉴얼과 함께 제품화를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조동식 대표는 인체 전기 막힘(저항이 높아진 부분)을 뚫어 주면 모든 질병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테라피워치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고 있으면 혈이 튼튼해지고 신경, 호르몬, 항염증, 항노화 등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테라피워치가 전자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임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가야 할 길이 멀다. 하지만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조동식 대표는 가야 할 길이 아무리 멀어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목표를 향해 갈 것이다.





디스플레이 검사기에서 로봇 기업으로 변신

티에스아이코리아, 사람 냄새나는 첨단 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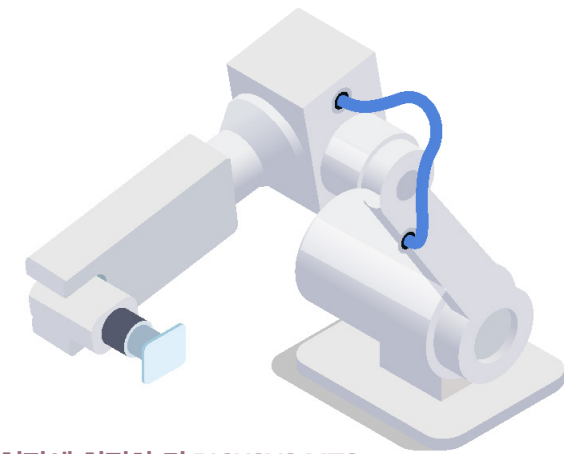
뛰어난 기술을 가진 IT 벤처 기업이 출범 초기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자신의 기술을 시장에 알리고 인정받는 것이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IT 벤처 기업은 생존하기 어렵다. 티에스아이코리아는 기술력도 탁월하지만, 그것을 알리는 마케팅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IT 벤처 기업이다. 그들은 IT 스타트업의 네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IT 스타트업이라면 티에스아이코리아가 알려주는 성공을 향한 길을 따라가면 어떨까.

회사를 키운 경험이 큰 힘이 된 창업 #1

티에스아이코리아 이철희 대표는 대학 졸업 후 입사한 에이앤아이에서 16년 동안 근무를 했다. 입사할 당시에는 열두 명이 근무하는 조그만 벤처였는데 16년이 지난 후 300명이 함께 일하는 연 매출 3,000억 원의 중견 IT 기업으로 성장했다. 에이앤아이의 성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결국 '사람이 회사를 키운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에이앤아이 박병해 대표는 2000년 창립 후 최고 실적을 기록한 2017년에 이철희 대표에게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고 새로운 도전을 제안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본인이 어떻게라도 책임지는 이철희 대표의 근성을 높이 산 배려였다. 이철희 대표는 티에스아이코리아 출범 6년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바라보는 반도체 검사 장비, 로봇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에이앤아이의 배려에 늘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이 받은 것 그대로 후배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다짐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

로봇 브랜드 시대를 여는 PICKSYS로봇 솔루션 #2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로봇이 많은 나라다. 제조업체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던 로봇이 요즘은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티에스아이코리아는 창업 초기부터 세상의 변화를 읽고 있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납품을 주력하는 회사로 출범했지만 로봇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협동 로봇이 등장하면서 로봇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관절 로봇에 최적화된 3D Vision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티에스아이코리아의 예상대로 로봇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었다. 하지만 로봇 공급 방식이 로봇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었다. 지금까지 로봇 시장은 SI 방식, 즉 주문자의 요구에 맞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급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방식은 자동화 공정을 전체를 개발해야 하기에 고객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 자동화를 위해 로봇을 도입하고 싶어도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티에스아이코리아는 고객의 부담을 줄여야 로봇 시장을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양산형 로봇 솔루션 개발에 착수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양산형 로봇 솔루션 PICKSYS 제품군이다. 티에스아이코리아가 선보인 PICKSYS 제품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처럼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골라서 도입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가공 현장에 최적화 된 PICKSYS MTS

티에스아이코리아에서 개발한 PICKSYS 제품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을 꼽으라면 단연 PICKSYS MTS 제품이다. PICKSYS MTS는 CNC나 MCT와 같은 가공 설비에 소재를 투입 후 가공 완료된 제품을 배출하는 공정에 협동 로봇을 적용하여 자동화된 제품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가공업체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PICKSYS MTS의 최대 장점은 2대의 가공기에 동시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존 작업자 대비 약 30% 이상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PICKSYS MTS를 도입한 고객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기능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1차 가공 후 바로 2차 가공까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적용한 기능으로 적용 초기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다소 불안정했으나 최근에는 이 부분까지 보완되어 다양한 설정까지 아무런 장애 없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화 되었다.

핵심 사업 분야의 경쟁력은 여전 #3

티에스아이코리아의 미래가 로봇 사업에 있다면 현재 핵심 주력 사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검사 자동화 설비 공급 사업이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은 COF AOI 검사기다. COF AOI 검사기는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인 DDI Chip을 COF 필름에 부착하는 COF Package 공정에서 최종적으로 외관을 검사하는 장비다. 삼성전자 계열사인 STECO사에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것은 물론이고 LG그룹 계열인 LB루셈에도 기술을 인정받고 납품하고 있다. 티에스아이코리아의 COF AOI 검사기 성능은 경쟁사 장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 웨이퍼 레벨의 반도체 후공정 검사기 수준의 검사 성능과 1초 이내의 빠른 검사 시간 등은 타사 장비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다. 티에스아이코리아는 COF AOI 검사기 성능을 앞세워 기존 경쟁사를 제치고 추가 수주를 지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티에스아이코리아는 LTCOF 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In-Line 검사기 개발까지 진행하고 있어 디스플레이 검사기 분야에서만큼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핵심 사업 분야의 경쟁력은 여전 #4

티에스아이코리아의 미래가 로봇 사업에 있다면 현재 핵심 주력 사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검사 자동화 설비 공급 사업이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은 COF AOI 검사기다. COF AOI 검사기는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인 DDI Chip을 COF 필름에 부착하는 COF Package 공정에서 최종적으로 외관을 검사하는 장비다. 삼성전자 계열사인 STECO사에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것은 물론이고 LG그룹 계열인 LB루셈에도 기술을 인정받고 납품하고 있다. 티에스아이코리아의 COF AOI 검사기 성능은 경쟁사 장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 웨이퍼 레벨의 반도체 후공정 검사기 수준의 검사 성능과 1초 이내의 빠른 검사 시간 등은 타사 장비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다. 티에스아이코리아는 COF AOI 검사기 성능을 앞세워 기존 경쟁사를 제치고 추가 수주를 지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티에스아이코리아는 LTCOF 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In-Line 검사기 개발까지 진행하고 있어 디스플레이 검사기 분야에서만큼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창업도약패키지 선정으로 도약 가능성 인정 #5

검사 자동화 설비 기업으로 출범한 티에스아이코리아는 제2의 도약을 위해 로봇 솔루션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로봇 솔루션 비즈니스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기업에 선정됨으로써 티에스아이코리아의 기술력과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을 공인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티에스아이코리아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기업 선정을 기회로 삼아 반도체/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기업으로서 기술과 시장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로봇 솔루션 시장에서 PICKSYS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 한다. 티에스아이코리아는 향후 5년 이내에 IPO를 통해 상장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벤처기업이 기업 공개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을 없을 것이다. 티에스아이코리아는 자신이 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 갈 것이다.

노력으로 맺은 열매, 함께 나누는 기쁨 #6

티에스아이코리아 이철희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회사를 경영의 어려움을 고백한다. “회사 경영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생소한 부분도 많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경험을 통해 조금씩 알아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이철희 대표는 자신이 맡은 일은 어떻게든 마무리하는 막강한 책임감의 소유자다. 자신이 선택한 창업, 성공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 이철희 대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팬데믹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중국 사이트 프로젝트였다. 한 달 가까운 격리, 그리고 수개월의 프로젝트 진행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했다. 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2년여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을 때 감회가 남달랐다. 이철희 대표는 중국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가로막더라도 해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철희 대표는 함께 고생한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잊지 않았다. “너무도 감사한 일은 중국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직원들 대부분이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성공의 달콤한 열매를 나누고 싶습니다.”

PICKSYS, 글로벌 로봇 솔루션 브랜드로 키운다 #7

최근 소부장 기업과 로봇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반도체 시장의 성장으로 반도체 장비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티에스아이코리아의 사업 환경이 매우 우호적인 상황이다. 좋은 환경은 소부장 기업의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티에스아이코리아 역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중 하나

다. 티에스아이코리아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로봇 솔루션 비즈니스는 초기 단계로 시장을 선도할 기회가 열려있다. 티에스아이코리아는 기회 선점을 위해 마케팅 전문가와 함께 PICKSYS 브랜드를 로봇 솔루션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마케팅 전략이 성공한다면 PICKSYS 브랜드는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잡을 것이다.

인력 인프라가 기술력의 차이를 만든다 #8

티에스아이코리아는 기술 기반 기업이다. 기술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티에스아이코리아의 최대 강점은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기술 격차다. 기술 격차를 만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의 기술 역량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티에스아이코리아는 하드웨어 설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구매, 제조 부분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기에 어떤 개발 과제라도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낸다. 직원 모두 오너십(ownership)으로 푼돌 뭉쳐있는 티에스아이코리아에게 풀지 못할 과제는 없다. 특히 검사 장비의 기반 기술인 머신 비전 기술과 AI, 3D Vision 관련 기술은 경쟁 회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기술력이 받치고 있는 경쟁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경쟁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의 차이로 열어가려는 티에스아이코리아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이다.

Tech connect

기술 우수 기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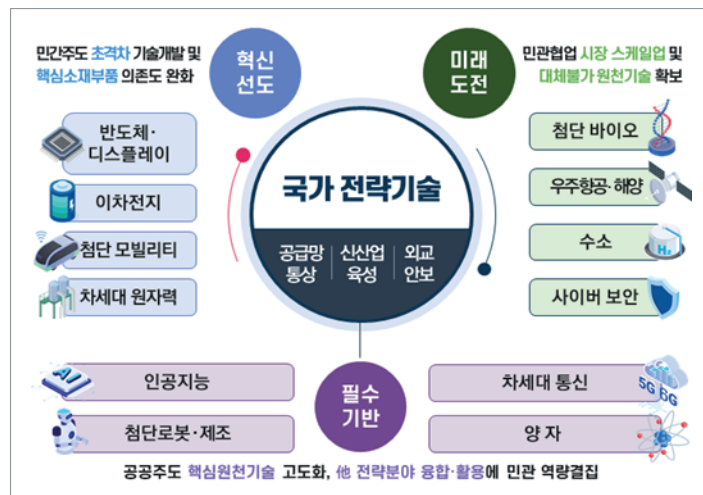
-국가전략기술, 우주·항공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보유기업 소개

■ 국가전략기술을 통해 바라본 기업 투자 방향 - 우주·항공

지난 3월, 정부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주요 12대 기술을 선정하여 2030년까지 170조원 규모를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의 기술패권 경쟁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이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기술중심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림] 12대 국가전략기술

(출처: 국가연구개발중장기투자전략, 2023.3.7)

■ 우주·항공 핵심기술 보유기업 7개 소개

그간 KITIA VIP Report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기업을 소개해드렸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소재부품기술개발(R&D)에 참여한 기업 중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 우수 기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기업과 연락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 KITIA 기술금융팀 한성주 연구원 ☎ 02-6000-7968 ✉ hansj@kitia.or.kr

Tech Connect 소개기업은 투자유치 의향이 확인되지 않은 Long list로, 기업과의 연락을 희망하시는 회원사에 한해 개별적으로 의향 타진을 지원합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세원하드페이징

업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사업분야	세라믹, 합금, 텅스텐카바이드 등 코팅소재로 피막형성 열간코팅		
주요제품	Thermal spray 소재 및 공정, PCB, Ceramic powder 등		
재무현황 (백만원)	2020	2021	2022
자산총계	31,945	32,897	34,590
부채총계	19,815	19,812	34,590
매출액	13,816	15,419	15,388
영업이익	1,483	1,212	2,026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표	곽찬원	기업형태	중소기업/ 외감
설립일	1997년	직원수	94명
주요고객사	엘지디스플레이, 에스아이테크, 프렉스에어 서피스 테크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참여이력			
과제명(개발 기간)			출연금(백만원)
고효율 제트엔진 및 마이크로 가스터빈용 고신뢰성 SiC 섬유강화 세라믹 복합소재 개발('12~'17)			1,765
자연모사기반 30W/mK급 경량 고방열 회로기판 제조기술 개발('17~'25)			1,765
SiC 섬유강화 세라믹 복합체 내환경 성능 향상 세라믹 코팅층 개발 ('20~'24)			1,765
대기 플라즈마 용사 코팅용 산화이트륨 기반 내플라즈마 원료소재 제조 기술 개발('21~'23)			1,765
산화이트륨 기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내플라즈마 소재 제조 기술 개발('21~'23)			2,608

2 (주)빅텍스 VICTEX

업종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사업분야	드라이아이스 제조공정, 레이저 세정 및 항공기 디페인팅 등		
주요제품	드라이아이스, CCU 기술 등		
재무현황 (백만원)	2020	2021	2022
자산총계	9,026	29,328	37,876
부채총계	3,500	14,637	20,014
매출액	11,476	14,835	12,940
영업이익	2,505	4,012	537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표	최진홍	기업형태	중소기업/ 외감
설립일	2000년	직원수	35명
주요고객사	컬리, 에스지씨에너지 등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참여이력			
과제명(개발 기간)			출연금(백만원)
제논 플래쉬 램프 및 LCO2를 이용한 항공기 코팅 제거 모듈('14~'17)			918

3 (주)데크카본 DACCC

업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사업분야	초고온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방산 및 항공부품 등		
주요제품	항공·차량 브레이크 디스크, 초고온 탄소복합재 등		
재무현황 (백만원)	2020	2021	2022
자산총계	29,710	34,465	46,927
부채총계	13,926	17,115	28,069
매출액	17,024	16,996	20,913
영업이익	2,117	1,582	1,410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표	김광수	기업형태	중소기업/ 외감
설립일	2014년	직원수	66명
주요고객사	한국화이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위사업청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참여이력			
과제명(개발 기간)			출연금(백만원)
1300°C 고온 엔진용 SiC 복합재 열구조물에 적용 가능한 고온 강도 2.0GPa급 SiC 섬유 및 제직물 제품의 실용화 기술개발('14~'17)			1,743
초고온용 결정질 SiC 섬유강화 세라믹 복합체용 SiC 섬유Fabric 개발('20~'24)			6,285
항공발전용 SiC 섬유강화 세라믹 복합체 개발('20~'24)			100

4 (주)단단 **dandan** materials

홈페이지 바로가기

업종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사업분야	반도체, Display, 제철, 에너지 및 특수 산업용 세라믹, 세라믹 코팅 부품		
주요제품	SiC, Y2O3, AlN, Si3N4, SiO2 소재 및 세라믹 코팅 공정 등		
재무현황 (백만원)	2020	2021	2022
자산총계	12,251	13,149	15,100
부채총계	2,375	2,303	2,613
매출액	6,354	6,024	8,112
영업이익	1,790	1,186	1,728

대표	이강호	기업형태	중소기업/ 일반법인
설립일	1999년	직원수	30명
주요고객사	케이씨씨, 국방과학연구원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참여이력			
과제명(개발 기간)	출연금(백만원)		
내플라즈마용 고밀도 세라믹 코팅 소재 및 분사공정 기술 개발 ('14~'20)	3,642		
1500 oC급 가스터빈용 SiC 섬유강화 세라믹 복합체 기술 개발('20~'24)	4,782		

5 주식회사코카브 **KORCARB** Ceramic Matrix Composite Engineering

홈페이지 바로가기

업종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사업분야	탄소섬유 단열재 및 복합재료 등		
주요제품	Rigid felt (Carbon fiber insulation), C/C Composite, Carbon fiber web 등		
재무현황 (백만원)	2020	2021	2022
자산총계	6,033	7,050	6,694
부채총계	4,202	4,602	5,400
매출액	652	3,640	1,254
영업이익	-840	715	-1,012

대표	김창곤	기업형태	중소기업/ 일반법인
설립일	2014년	직원수	14명
주요고객사	케이씨씨, 국방과학연구원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참여이력			
과제명(개발 기간)	출연금(백만원)		
고출력 터빈엔진 및 우주항공 엔진 부품 적용을 위한 1400°C급 초경량 비산화물 CMC 소재 개발('16~'21)	8,279		
내열온도 1000 IR 방사율 300W 이상인 탄화규소 섬유 버너미디어 제조 및 고에너지효율 연소시스템 적용기술 개발 ('18~'21)	2,606		

6 (주)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 **ANH** Structure

홈페이지 바로가기

업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사업분야	우주 항공 및 중공업 분야에서의 핵심 구조 설계 및 복합소재 개발		
주요제품	항공기 구조설계, 항공기 좌석, 우주발사체 복합재 추진제 탱크		
재무현황 (백만원)	2020	2021	2022
자산총계	29,501	30,669	32,665
부채총계	17,137	17,324	18,909
매출액	11,813	10,318	10,205
영업이익	1,383	1,200	494

대표	안현수	기업형태	중소기업/ 외감
설립일	2013년	직원수	60명
주요고객사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등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참여이력			
과제명(개발 기간)	출연금(백만원)		
대형 민수항공기 이코노미급 복합재 경량 좌석 국산화 개발('19~'22)	2,915		

7 (주)호원파워텍 **Hyowon Power Tech**

홈페이지 바로가기

업종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사업분야	항공용/EV/방산용 전력전자 제어장치		
주요제품	항공용 전력 제어장치, 인버터, 컨버터 등		
재무현황 (백만원)	2020	2021	2022
자산총계	931	1,855	4,876
부채총계	33	48	3,060
매출액	738	1,046	521
영업이익	-203	-393	49

대표	김장목	기업형태	중소기업/ 일반법인
설립일	2014년	직원수	2명
주요고객사	효성, 블루탱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참여이력			
과제명(개발 기간)	출연금(백만원)		
150kW급 고출력 모터제어 인버터 개발('20~'23)	3,071		

정부의 우주항공산업 지원 소식

정부,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지원

9월 21일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우주발사 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우주기술과 수요기업 간 매칭과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를 확대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시장 지원을 위해 민간 발사장 건설, 면허제도, 우주운송사업을 지원하는 법률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년 5월,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

※ Tech Connect 소개 기업은 투자유치 의향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이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한국평가데이터(KoDATA)를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The Deals

투자유치 희망 소재 · 부품 · 장비 벤처기업



KITIA 투자유치 지원사업 참여 투자유치 희망기업 소개

■ 투자유치 희망 소재·부품·장비 기업, 11개 소개

KITIA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소부장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회원사와 매칭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 살펴볼 기업들은 KITIA의 '찾아가는 IR 서비스(Fam Tour)'에 참여한 투자유치 희망 기업입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투자기업 발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가 기업 정보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 KITIA 투자전략팀 윤한준 연구원 ☎ 02-6000-7950 ✉ hjyun@kitia.or.kr

The Deals의 소개기업은 2023년 10월 1일 기준, 투자유치 의향이 확인된 기업입니다.

번호	기업명	사업영역	투자희망금액	방식
1	드라이브포스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 등	100억원	우선주
2	라드피온	이온빔 용복합기술 (반도체 이온주입 제전 솔루션)	50억원	보통주·우선주
3	멤스룩스	마이크로렌즈어레이, 도광판, 매직라이팅 프로젝트	30억원	보통주·우선주
4	아스트로닉엘에스	전기·전자 계측 자동시험장비	10억원	보통주
5	에너지스	전력차단기·보조계전기 통합 자동시험장비	20억원	우선주
6	에스씨솔루션글로벌	누수탐지기 (Leak Master)	30억원	우선주
7	엠케이	자동차 정기 검사 예약 플랫폼	10억원	보통부·우선주
8	이지지오	웨어러블 디바이스	7억원	보통부·우선주
9	첨단랩	기능성 세라믹 소재·부품	40억원	보통부·우선주
10	케이랩스	3D 프린팅 & 금속 3D 프린팅 적용 방산부품	80억원	보통부·우선주
11	히스컴퍼니	나노 3D 형상 측정·검사 광학 솔루션	20억원	보통주

※ The Deals의 기업 소개는 기업에서 작성한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1. Drive Force 드라이브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회사개요	
대표명	윤성식
설립일자	2019.04.30.
기업형태	중소기업/일반법인
임직원수	20명
자본	117백만원
주생산 분야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 모터 드라이브 시스템 등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022	2021
매출액	2,999	924
영업이익	114	11
당기순이익	419	105
부채비율	638	738
유동비율	91	38

투자희망 개요	
금액	100억원
방식	우선주
목적	공장 증축, 해외 지사 설립, 직원 충원 등

지배구조	
주주명	지분율
윤성식	85%
스톤브릿지벤처스	15%

투자유치 이력		
연도	투자자	금액
2023	스톤브릿지 벤처스	30억원

기술 · 사업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해양 분야에서 선박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방위 추진 시스템, 해수 냉각시스템, 원치 제어시스템 등 부품 장비 제공 - 국내최초 친환경 선박 하이브리드 시스템 납품 - 친환경 선박 전기추진 시스템 납품 실적 보유 - 국내 최대 실적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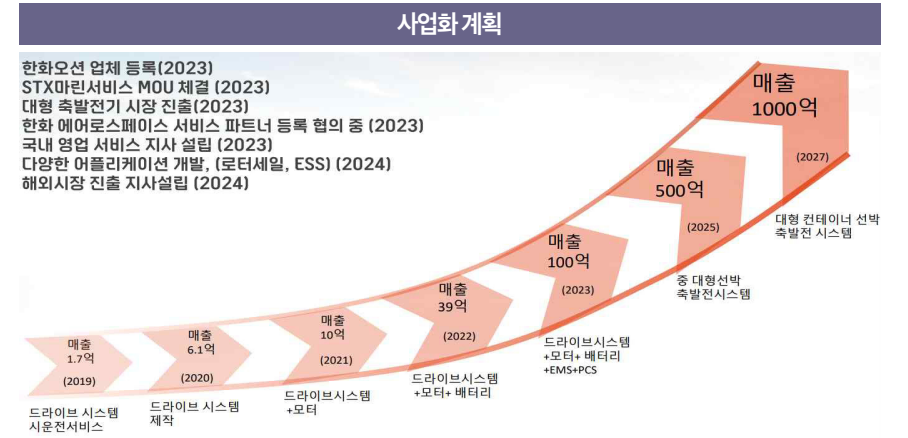
항목	내용	시장규모(30)
선박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시스템	• 중소형선박 국내1위 : 최다 납품실적보유 → (시장규모) 차도선 162척, 어선 65,531척	그린쉽 K 프로젝트 : (국내) 약 1,000억원/년 (해외) 약 10조원 이상 * 소형선박 엔진 시장 기준
Retrofit (축발전기, ESS, AMP 등)	• IMO 규정 강화로 기존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 증가	1,000억원/년 (국내 20척 기준)
대형선박용 대용량 고전압 축발전 시스템	• GE, WE-Tech, Wartsila 등 외국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 진출 준비 중 ('25년 국산화 목표)	1,300억원/년 (국내 50척 기준)
수냉식 열교환기	• 국내 최초 선박용 수냉식 전력변환 시스템 개발 • 중대형 선박 적용을 위한 수냉식 열교환기 개발	30억원/년 (국내 30척 기준)
유지보수 시운전 서비스	• MAN, WE-Tech, Wartsila 등 시운전 서비스 제공 • 국내 KIOST, 해군 등에 납품된 선박 유지보수	30억원 이상/년 (매년 증가)

시장 현황 및 전망

- 선박시장 환경규제에 따른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친환경 전기/하이브리드 추진선박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IMO)규제 강화에 따라, 신조 선박 뿐만 아니라, 기존운항선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솔루션 수요 증가

구분	현재 시장규모('22)	예상 시장규모('26)
국내시장규모	300억원(약 20척의 '그린쉽-K')	900억원(약 60척의 '그린쉽-K')
세계시장규모	53,000억원	98,000억원

출처 : '22년 한국형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22.01. 해수부)중소기업기술로드맵'22~24년 미래형 선박(전기추진 선박용 기자재)
* 국내시장 : 관공선 선박 건조 금액의 30%로 추정계산
* 세계시장 : Electric Ships Market('19, MarketsandMarkets)



2. radpion 라드피온

홈페이지 바로가기

회사개요	
대표명	김명진
설립일자	2017.12.12.
기업형태	중소기업/일반법인
임직원수	21명
자본	200백만원
주생산 분야	이온빔 융복합기술 (반도체 이온주입 제전 솔루션)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022	2021
매출액	1,026	644
영업이익	135	-199
당기순이익	85	-216
부채비율	58	233
유동비율	4,056	1,464

투자희망 개요	
금액	50억원
방식	보통주·우선주
목적	산업용지 매입 및 공장신설

지배구조	
주주명	지분율
김명진	67.4%
직원(5명)	7.5%
투자사(7개)	25.2%

투자유치 이력		
연도	투자자	금액
2022	MMSV 소재부품 9호 조합	30억원
2022	신용보증기금	2
2022	오라클지역뉴딜 벤처펀드	2
2021	씨앤벤처파트너스	2
2021	씨앤브이피 컨버전스 1호 개인 투자조합	2
2021	원앤파트너스(유)	2
2021	인포뱅크 개인투자조합 2호	2



기술 · 사업 경쟁력

- 사업성장성**
 - 반도체 이온주입 제전부품은 2021년 09월 세**(주)의 최신 포토공정장비에 양산 반영되었으며, 클리닝 장비 양산 확대 진행 중
 - 이온주입 세라믹 제전부품 사업화 및 이온주입 이종융합 반도체 소재 개발, 이온주입 EUV 에칭기술 개발 등을 추진 중
- 기술/서비스 차별성**
 - 반도체 이온주입 제전부품은 낮은 축전전압, 균일한 제전성능, 높은 내화학성, 그리고 입자 재방출 및 박리현상이 없기 때문에 정전기 불량률의 80% 이상을 제거할 것으로 평가
 - 우수한 제전성능, 높은 가성비, 낮은 양산진입장벽, 친환경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반도체 정전기 제거를 위한 세계 최고의 솔루션으로 평가

항목	경쟁기술 (CNT)	(주)라드피온
제전방법	탄소나노튜브 분말 혼합	기체/금속 이온주입
특성	축전전압 150V 제전성능 비균질 내화학성 낮음 탄소 분말 방출/재방출 확률 높음	축전전압 20V 제전성능 균질 내화학성 높음 박리, 재방출 현상 없음 반영구적 성능 유지
제전방법	원 재료에 탄소 분말 혼합 탄소 분말 혼합 재료 최종 성형 탄소 분말 혼합 시 원 재료 제약 존재	기존 최종 성형 제품에 이온주입

시장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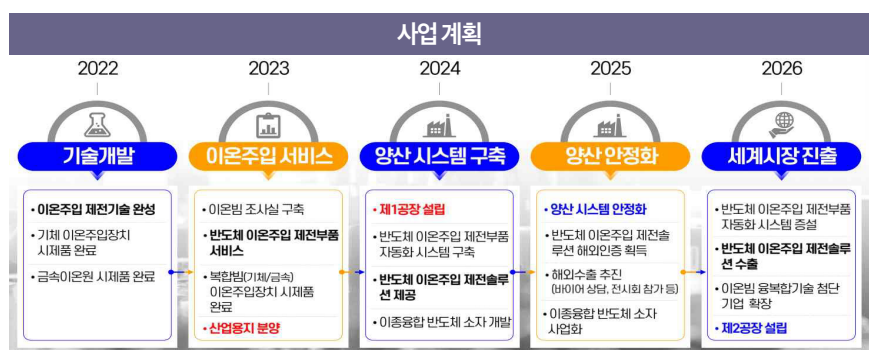
이온빔 조사

- 기체 이온빔 조사
- 금속 이온빔 조사
- 복합 이온빔 조사
- 레이저 이온빔 조사

표면특성 평가

- 전기전도도 측정
- 소수/친수성 측정
- 기체 투과도 측정
- 자외선 차단 측정

- 시장현황**
 - 세계 반도체 이온주입 제전솔루션 시장은 아직까지 시장형성단계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최소 4.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시장전망**
 - 반도체 도핑장비를 제외한 반도체 이온주입기술 세계 시장 규모는 '22년 260억 달러 이상이며 연평균 20% 이상 크게 성장하여 '28년에는 1,000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예측
 - 약 400조원 규모의 전체 전기전자산업 제전솔루션 시장과 반도체 이온주입기술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최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검증된 (주)라드피온의 이온주입기술 제전 솔루션은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 및 매출 증대가 기대



3. MEMS LUX 멤스룩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회사개요	
대표명	윤준보
설립일자	2017.05.04.
기업형태	중소기업/일반법인
임직원수	9명
자본	70백만원
주생산 분야	마이크로렌즈어레이, 도광판, 매직라이팅 프로덕트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022	2021
매출액	317	208
영업이익	-371	-185
당기순이익	-384	-185
부채비율	13	27
유동비율	548	383

투자희망 개요	
금액	30억원
방식	보통주·우선주
목적	운영자금 및 양산 시설

지배구조	
주주명	지분율
윤준보 및 특수관계인	62.6%
투자사	22.6%
기타	14.8%

투자유치 이력		
연도	투자자	금액
2022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10억원
2021	엘앤에스 벤처캐피탈	3억원
2021	엘앤에스 벤처캐피탈	3억원
2018	기술보증기금	5억원



기술 · 사업 경쟁력

핵심 경쟁력

- 타사 대비 3D 마이크로패턴 모양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제조법 (3D 마이크로패턴 제조법) 보유
- 타사 대비 독자적 3D 마이크로패턴 구조 특허 보유
- 타사 대비 2 ~ 5 μm 직경 초정밀 MLA 제조
- 타사 대비 350 X 450 mm 대면적 제조

KR 10-0643584
KR 10-0649937
KR 10-0797778
KR 10-0817101
US 7,989,154
US 8,278,028
CN ZL 200810091611.6

- 사업성장성**
 - 차량용 디스플레이 탑재 영역이 조수석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 운행을 위한 신기술인 '시야각 제어기술'이 공개되었음. 이러한 시장 현황에 따라,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탑재되는 특수 도광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임
- 기술/서비스 차별성**
 - 빛을 원하는 각도로 낼 수 있는 3차원 마이크로 광학패턴 구조 및 도광판 제조 기술을 자체 개발함. 또한, 관련 특허를 확보하여 기술 진입 장벽을 구축함. 기존 LCD 도광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출광 각분포 특성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LCD BLU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음

시장 현황 및 전망

사업 영역 (LGP & MLA)


- IT(중형), 차량 디스플레이용 고성능, 특수 도광판
- LED 휘도 향상용 초정밀 MLA
- 차세대 新도광판 - 매직라이팅 플레이트*
- LiDAR-3D센서용 특수 MLA

- 시장현황**
 - 2023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95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 시장전망**
 - 코로나 침체되어 있던, 완성차 판매의 정상화로 디스플레이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자동차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인 LG디스플레이는 기존 LCD 대비 대형화 및 고해상도 구현이 유리한 'LTPS(Low Temperature Poly Silicon) LCD'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사업화 계획



4. 아스트로닉엘에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회사개요	
대표명	김성구
설립일자	2022.09.01.
기업형태	중소기업/일반법인
임직원수	5명
자본	2,000백만원
주생산 분야	전기·전자 계측 자동시험장비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022
매출액	2,360
영업이익	1,298
당기순이익	778
부채비율	5.3
유동비율	6.5

투자희망 개요	
금액	10억원
방식	보통주
목적	보통주

지배구조	
주주명	지분율
김성구	65.5%
MIN YONGYI	10%
김지우	7.8%
기타 8명	16.7%

투자유치 이력		
연도	투자자	금액
2018	MIN YONGYI	1.8억원



기술 및 사업 소개

고 휘도 집적화 방수·방폭·방탄 LED Semiconductor



재난안전제품 분야에 특화된 제품인 방수·방염·방탄 기능이 탑재된 "차량 이동 타입 LED 타워 조명 자동차" 제품의 상용화를 이루어냈고 중국,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등 5개 국가에 수출시작, 현지 소방, 국방 분야 글로벌 조달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2022년 산업통상부 대한민국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지정 받았고, 2023년 8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마크를 신청 중으로, 오는 11월 재난안전제품으로 선정 시, 소방청 우수조달 제품으로 국내 재난안전소방 장비 조달시장에서 독점 공급망 구축을 기대하고 있음.

시장 현황 및 전망

● 시장 현황 및 전망
재난안전산업의 세계 시장규모가 앞으로 10년 동안 2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발표한 '안전산업의 경쟁력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3년 세계 재난안전산업 시장규모는 5,376억 달러(614 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행정안전부의 '2019 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재난안전 산업 시장규모 또한 2018년 말 기준 44조원으로써, 2017년보다 2조원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20년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면서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안을 발표를 통해서 시장전망이 매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신산업분야이다.

2013년	2020년	2023년
2,809억 달러(320조원)	3,676억 달러(420조원)	5,376억 달러(614조원)

출처: 산업연구원 보고서


기술 · 사업 경쟁력

1. 국내, 외 최초로 상용화를 이루어 생산 중에 있는 "차량 이동 타입 LED 타워 조명 자동차" 제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조달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미래가치 사업성 및 투자 수익성 증가하고 있다는 점

2. 특히, 고효율 방수·방폭 기능이 탑재된 집적화 LED 패키지 소자 제조 기술을 독자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고 화재 및 화학물질에 강한 내구성 및 방염 신기술이 탑재된 특수 자동차 설계 및 제조기술력을 보유해서 기존 특수 자동차와 차별화를 이루어 낸 점

3. 이동 타입 LED 타워 조명 자동차의 "LED 조명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는 고휘도 집적화 방수·방폭 소자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국방 분야제품과 소방안전제품 조달시장이 가파르게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특화된 제품을 능동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조달시장 주도 및 조달 시장 경쟁력 우위를 선점해 나가고 있다는 점

5. 에너시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회사개요	
대표명	송규호
설립일자	2017.03.03.
기업형태	중소기업/일반법인
임직원수	10명
자본	200백만원
주생산 분야	전력차단기·보조계전기 통합 자동시험장비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022	2021
매출액	643	621
영업이익	-298	-472
당기순이익	-176	-184
부채비율	187	665
유동비율	205	215

투자희망 개요	
금액	20억원
방식	우선주
목적	제품개발, 인력채용 등 사업확장

지배구조	
주주명	지분율
송규호	50%
박지영	50%

투자유치 이력		
연도	투자자	금액
-	-	-



기술 · 사업 경쟁력



보조계전기
통합 자동시험장비

- RTS 100S - 포터블 타입
- RTS 100R - 19" 랙타입
- RTS 100D - 데스크 타입



전력차단기
통합 자동시험장비

- CBS V100 - 진공차단기 (VCB)
- CBS A100 - 기중차단기 (ACB)
- CBS R100 - 원자로정지차단기 (RTSG)
- CBS 100 - 포터블 타입



방사선
감시시스템

- 검출기 (생광체, 이온관, GM TUBE)
- PRE-AMPLIFIER (전치증폭기)
- RATEMETER (선량표시기)
- RMS 진단 성능 시험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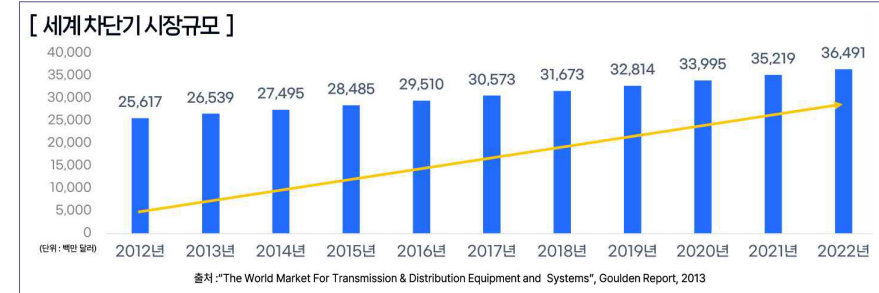
● 사업성장성
- 전력차단기/계전기는 발전소 및 산업현장(공장 등)을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설비로서, 그 시장규모는 전 세계 30조(차단기 시장기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차단기/계전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시험장비 제조 및 판매는 국내 시장에서 당사가 유일(차단기)하고, 해외시장에서는 O사와 M사 정도만 있어, 국내 및 해외시장 점유를 통한 사업성장성이 매우 높음

● 기술/서비스 차별성
- 제품 개발 및 사업화와 연관된 원천기술(특허)만 7종을 보유하고 있고, 다년간의 연구개발 노하우를 통하여 이미 수많은 원전에 단일 시험장비로는 최대 판매를 달성한 이력이 있음. 해외 시장 점유율 1위인 해외기업의 제품을 국산화 개발 중이며, 보다 나은 집약된 기술력과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하면서 가격경쟁력까지 있는 제품 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중임

시장 현황 및 전망

● 시장규모
- 당사의 주력 제품인 차단기/계전기 시험장비 시장에서의 당사 시장 점유율은 국내 원전 기준으로 독보적이며, 해당 제품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최소 2조원 이상임

● 시장전망
- 차단기/계전기의 시장 성장률은 매년 평균 3.6% 내외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시험장비의 시장성장을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긍정적 시장전망을 예상할 수 있음



사업 계획

품명	개발기간	개발내용 및 비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VCB / ACB / RTSG 전력차단기 자동시험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2027년 (5년소요) 2023년 - 보조계전기 시험장비 2023-2027년 - MCCB 대안형 시험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동작시험 각종 저항측정 초고속 채터링 절연저항 부족전압시험 과전류 계전기 통합시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고압 전력차단기 통합 시험장비 발전소 통합 진단 장비 RMS 시험장비 (검출기, 전치증폭기 등) 누설전류 측정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2030년 (3년소요) 2028년 - 초고압 차단기 통합시험장비 발전소 통합 진단장비 2028년 - 누설전류 측정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멀티제어 장치 초고압전원: 80 kV 전압 제어장치 전류 제어장치 대전류 전원: 3000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in System Main Contact Module Transducer Node Primary Test Manger 전력변환장치 (PCS) 전력관리시스템 (PMS) 멀티 센서 제어 시스템 로그우스키 센서 제어 시스템

6. SC SOLUTION GLOBAL 에스씨솔루션글로벌

홈페이지 바로가기

회사개요	
대표명	나광운
설립일자	2015.02.09.
기업형태	중소기업/일반법인
임직원수	30명
자본	200백만원
주생산 분야	누수탐지기 (Leak Master)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022	2021
매출액	3,174	2,444
영업이익	623	226
당기순이익	514	246
부채비율	77	49
유동비율	2,769	4,337

투자희망 개요	
금액	30억원
방식	우선주
목적	연구개발, 사업화

지배구조	
주주명	지분율
나광운	52%
비에이피제3호 플라이핑권투자조합	14%
배성환	10%

투자유치 이력		
연도	투자자	금액
2021	퍼스트스텝 제1호조합	1억원
2021	비에이피 제4호스텝업 핑권투자조합	10억원
2021	비에이피 제3호플라이 핑권투자조합	20억원



기술 · 사업 경쟁력

● ICT융복합 제품 구성 : 누수감지센서+클라우드+어플리케이션

진동음 수집부 + 프로세서 + 통신 + 인포+로 구성된 누수음수집 및 실시간 클라우드 서버 전송, P66방수방진 인증, LTE-M/NB470T 지원, 이동통신 광무선으로 현장에서 실시간 누수탐지

프로젝트별 생성 센서배치유기+이동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누수판단

별역별 누수판단결과 원격제어 및 모-푸링, 통신상태, 동작상태, 배수기, 관리량, On/Off 동작시간 변경 등, 수집을 청취 그래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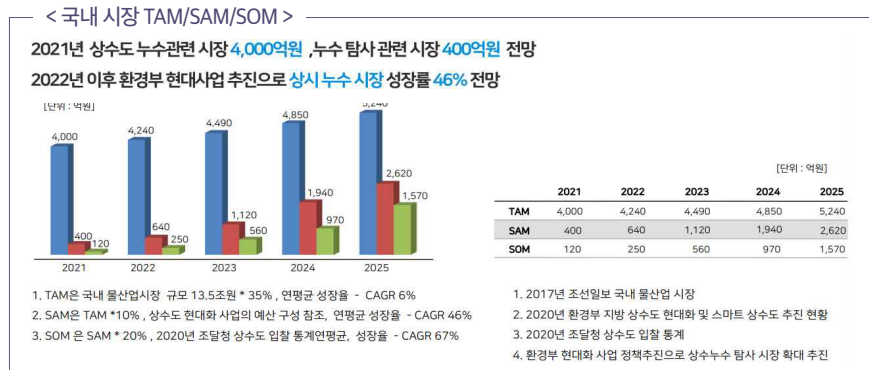
● 사업성장성
- 유투 및 온수관분야 시장확대, 물 관련 통합 플랫폼, 해외 시장 진출 및 스마트팩토리 누수분야 신규 진출로 2025년 350억원 매출 전망

● 기술/서비스 차별성
- 가격적 우위, 혁신제품 선정, 누수탐지용, 누수위치 파악, 미세누수탐지, 다양한 통신방식

시장 현황 및 전망

● 시장현황
- 온수관 시장은 2022년부터 매년 5%이상 성장하고 있음
- 국내 설치된 온수관의 총길이는 약 2,500킬로미터이며 그 중 33%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으로 파악되고 있음 (2020, 한국지역 난방공사)

● 시장전망
- 상수관과 함께 온수공급이 늘어나면서 온수관 분야에서도 환경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등이 증가되어 누수 탐사 및 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사업 계획

2015	2019	2022	2025
물과 IT의 융합 ICT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 기술 개발	상용화 개발 상용화 개발 및 고도화 국내시장 진출	해외 시장 진출 유체 + IT 융합, 고장 예지	혁신물거점 매출 350억 국내시장 70% 해외시장 30% 스마트워터 플랫폼 융합센서(누수, 유량, 유입 수질) 관망데이터 관리 B2B 솔루션
한국수자원공사 혁신 스타트업 대한민국 특허 대상	우선조달 제품/GS1등급/KC/CE 인증 환경부 국가물클러스터업/주거업 선정	혁신제품 선정 신 SAW대상 글로벌 기술사업화 SW 고성장 클립 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 스페셜사업 선정	

7. MK CARYAK 엠케이

홈페이지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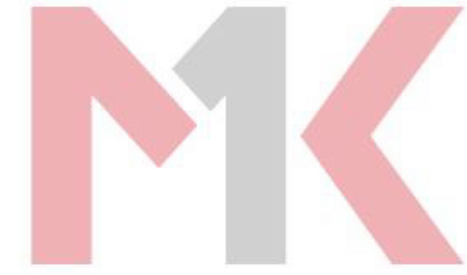
회사개요	
대표명	변무영
설립일자	2018.05.16.
기업형태	중소기업/일반법인
임직원수	7명
자본	269백만원
주생산 분야	자동차 정기 검사 예약 플랫폼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022	2021
매출액	903	690
영업이익	64	27
당기순이익	10	10
부채비율	196	113
유동비율	89	338

투자희망 개요	
금액	10억원
방식	보통주·우선주
목적	사업화 (플랫폼 영업 및 마케팅)

지배구조	
주주명	지분율
나광운	52%
이규용	11%
이규용	7.4%

투자유치 이력		
연도	투자자	금액
2021	신용보증기금	5억원
2021	NPI	3억원
2019	클라우드	3억원



기술 · 사업 경쟁력

2023년 3월부터 경남 김해시 서비스 시작!

- 가입률 : 41%
- 전환률 : 34%
- 만족도 : 4.8/5점
- 안내문자건 : 7천건/월
- 방문자수 : 약 500건/월

● 사업성장성
- 현재 모바일 중심의 자동차 정기 검사 예약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기술/서비스 차별성
- 2018년부터 자동차 정비소를 중심으로 성장하며 워셔액 제조기 및 충전 카트리지를 개발하여 전국 약 2400개의 정비소를 고객으로 확보(시장 네트워킹 확보)

시장 현황 및 전망

● 시장규모
- 국내의 연간 차량 검사 대수 약 1,250만대로 약 5,200억원 시장

● 시장전망
- 법적으로 2년에 한번씩 받는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함
- 우편으로 검사 안내가 되며, 아직까지 정부 직영점을 제외하면 모바일 혹은 인터넷으로 자동차 검사를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음
- 전국 검사소는 약 1,800개이며, 그 중 정부 직영점은 50개임
- 향후 전 분야에서 DX가 진행 중이며, 이 분야 역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
- 실제 자동차 검사 관련 검색어의 검색량이 매년 증가 중



사업 계획

1 커머스 확장 전략 I

STEP 1 > 자동차 검사 플랫폼

1.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
- 모바일 기반 서비스 제공(차주/검사소)
[타입 - 검사 - 정비 - 세차 - 타입]
2. 자동차 검사 대행 서비스
- 픽업 서비스로 고객 유입 확대

STEP 2 > 자동차 관리 O2O 플랫폼

1. 자동차 소모품 유통 서비스
- 금융사와 연계하여 자동차 관리료를 한번에 !!
[엔진오일 / 오일필터 / 에어필터 / 워셔액 등 OneStop 서비스]
- 소모품 대한 유통 및 관리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
2. 차량 관리 구독 서비스
- 금융사와 연계한 자동차 관리 구독 서비스

자동차 관리 구독 서비스
- 연 2회 자동차 정기점검 - 자동차 정기검사 무관 타입 서비스
- 엔진오일 및 소모품 교환 서비스 - 연 2회 스티크 세차 서비스

8. EasyGeo 이지지오

회사개요	
대표명	김정수
설립일자	2008.07.24.
기업형태	중소기업/일반법인
임직원수	27명
자본	1,500백만원
주생산 분야	웨어러블 디바이스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022	2021
매출액	2,378	1,770
영업이익	64	19
당기순이익	58	18
부채비율	150	102
유동비율	615	768

투자희망 개요	
금액	7억원
방식	보통주·우선주
목적	신규사업 확장

지배구조		
주주명	지분율	
김정수	100%	

투자유치 이력		
연도	투자자	금액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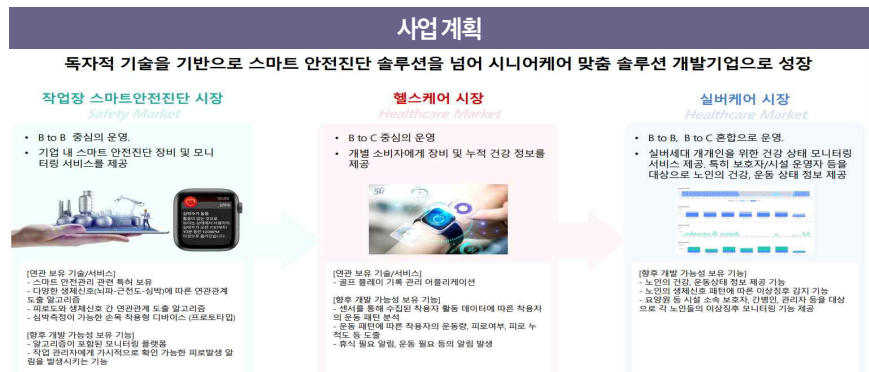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업성장성**
 - 본 서비스의 핵심 목표 시장은 국내 BtoB 시장이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국내 산업 분야 중 스마트 안전 진단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규모는 약 6,000억~8,000억으로 추정되어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음
- 기술/서비스 차별성**
 - 일반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산업안전관리 시스템과 달리,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근피로도, 뇌파와 심박수 등 빅데이터 간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손목에서 측정 가능한 심박 등의 한정적인 데이터로도 착용자의 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시장 현황 및 전망	
● 시장현황	- 다양한 산업에서 작업장의 안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작업자의 작업 환경에 크게 제한받지 않는 웨어러블 장치 등을 통한 산업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시장전망	- 전세계 산업용 웨어러블 시장은 2019년 11억 2,57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50.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세계적으로 86억 1,000만 달러의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9. CheomdanLab 첨단랩

회사개요	
대표명	장하준
설립일자	2018.10.04.
기업형태	중소기업/일반법인
임직원수	8명
자본	31백만원
주생산 분야	기능성 세라믹 소재·부품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022	2021
매출액	1,327	406
영업이익	164	-668
당기순이익	2,163	-300
부채비율	12	36
유동비율	1,608	9,733

투자희망 개요	
금액	40억원
방식	보통주·우선주
목적	시설자금/개발자금

지배구조		
주주명	지분율	
장하준	64%	
KDB산업은행	10%	
미래과학기술지주	7%	
선보엔젤파트너스	7%	
전남대기술지주 광주연합기술지주	5%	
기타	4%	

투자유치 이력		
연도	투자자	금액
2022	전북대기술지주/특허법인 지원	1.5억원
2022	연세대기술지주	2억원
2022	전남대기술지주/광주연합기술	5억원
2020	KDB산업은행	10억원
2019	미래과학기술지주	5억원
2018	선보엔젤파트너스	1억원

* 기업 홈페이지 : <http://cheomdanla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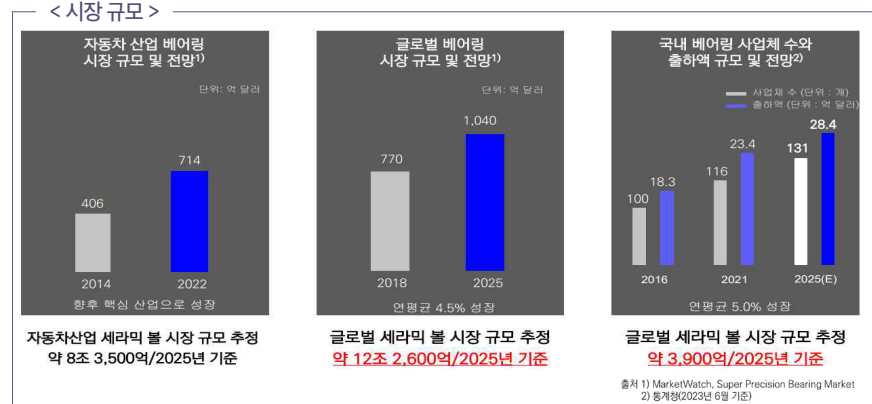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업성장성**
 - 베어링은 전동화 기계장치 핵심 요소 부품으로 대일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부품 중 하나
 - 전기자동차 구동 부품(모터/감속기)은 소형화 및 경량화, 고속화에 따른 높은 에너지효율에 대한 수요 확대로 세라믹 베어링이 반드시 필요
- 기술/서비스 차별성**
 - 반도체 공정 및 태양광 패널의 페실리콘(Si)을 재활용하여 원천 소재의 안정적 확보 및 제품 단가를 낮춤
 - 상용화가 가능한 원천기술과 Know-how 확보(국내 특허 2건 등록, 유럽/일본/중국 개별국 특허 출원 상태)

시장 현황 및 전망

- 시장현황**
 - 세계 베어링 시장 규모는 '18년 약 106조에서 연평균 4.5% 성장하여 '25년 약 137조에 이를 전망
 - 국내 베어링 시장 규모는 연평균 2.8% 성장하였으며 '25년 약 4조원대에 이를 전망
- 시장전망**
 - 국내 일진베어링 최근 SR그룹과 고속철도차량 차축 베어링 상용화 성공하여 고속 회전용 세라믹 베어링 수요 증가 예상
 - 자동차, 고속철도, 우주항공, 로봇, 가전제품 분야 비중 높으며 최근 풍력발전 분야 수요 상승으로 세라믹 베어링의 공급 부족



사업 계획



10. K Labs 케이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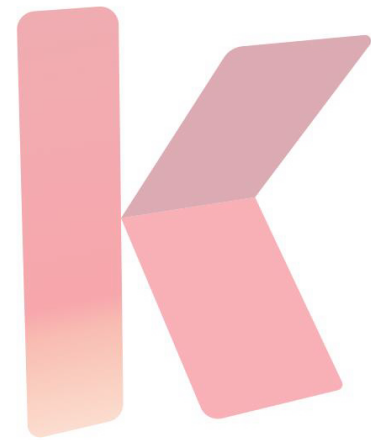
회사개요	
대표명	김원호
설립일자	2015.08.21.
기업형태	중소기업/일반법인
임직원수	15명
자본	100백만원
주생산 분야	3D 프린터 & 금속 3D 프린팅 적용 방산부품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022	2021
매출액	1,843	1,570
영업이익	57	21
당기순이익	48	21
부채비율	150	209
유동비율	593	123

투자희망 개요	
금액	80억원
방식	보통주·우선주
목적	시설투자/개발자금

지배구조	
주주명	지분율
김원호	100%

투자유치 이력		
연도	투자자	금액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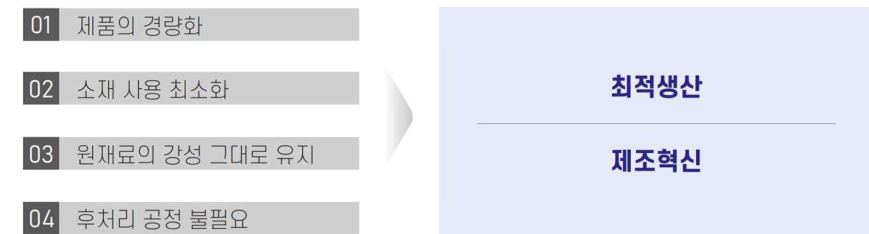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기술/서비스 차별성
 - 국내 최고의 해석기반 3D 프린팅 맞춤형 설계 기술 보유
 - 국내 최초 유도무기에 적용되는 전기작동식 유압서보밸브바디 3D 프린팅 기술 적용 및 성능평가 완료
 - 금속 3D 프린팅 기반 항공기용 터보엔진 연료 개통 부품 개발 중
 - 국내 최초 금속 바인더젯 3D 프린터 기술 개발 중 (2023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총괄주관 - 국비 200억)

케이랩스의 차별점 DfAM(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 : 적층제조특화설계)는 3D프린팅 제조의 6대 핵심기술로 꼽히는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적인 설계기법입니다.



시장 현황 및 전망

- 시장규모
 - 연 평균 25%이상 고속 성장하며, 2030년 글로벌 시장 100억 달러 예상 (Wohlers Report 2021)
- 시장전망
 - 자체 완제품 개발 완료시 (2026년 예정) 연 100억원 매출 예상 (기존 양산 제품 포함)
 - 러-우 전쟁 및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하여 방산분야에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05월 바이든대통령은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3D 프린팅 분야 집중 육성하기 정책을 발표하였음.
 - 미국의 방산기업들은 공급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3D 프린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글로벌 방산기업인 BOEING은 미육군 차세대 정찰 공격헬기 레이더 X 개발에 3D 프린팅으로 제조된 수백개의 부품을 적용하여 조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11. HICS COMPANY 히스컴퍼니

회사개요	
대표명	이대건
설립일자	2014.06.23.
기업형태	중소기업/일반법인
임직원수	28명
자본	121백만원
주생산 분야	나노 3D 형상 측정·검사 광학 솔루션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022	2021
매출액	35	103
영업이익	-2,667	-2,279
당기순이익	-1,539	-1,348
부채비율	915	91
유동비율	15	140

투자희망 개요	
금액	20억원
방식	보통부
목적	연구개발, 장비, 운영자금

지배구조	
주주명	지분율
이대건	33%
서울투자청년창업 벤처조합	16%
기타	51%

투자유치 이력		
연도	투자자	금액
2021	KDB인프라	10억원
2020	우리은행(주)	10억원
2018	SJ투자파트너스	10억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술 · 사업 경쟁력

Semiconductor | 반도체

- 나노단위의 미세공정 전환에 따른 첨단 패키징 시장에서의 수요증가 예정

Display |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의 정밀한 Edge부와 같이 표면 굴곡과 같은 부분의 정밀측정이 요구됨

다양한 약조건의 샘플 측정 경험을 토대로 Real 3D DEPTH 측정이 가능

Secondary cell | 이차전지

- 국내외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전환과 맞물려 이차전지 시장이 급성장 중 특히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각 공정마다 별도의 검사장비 수요가 증가함

Bio · Medical | 바이오 ·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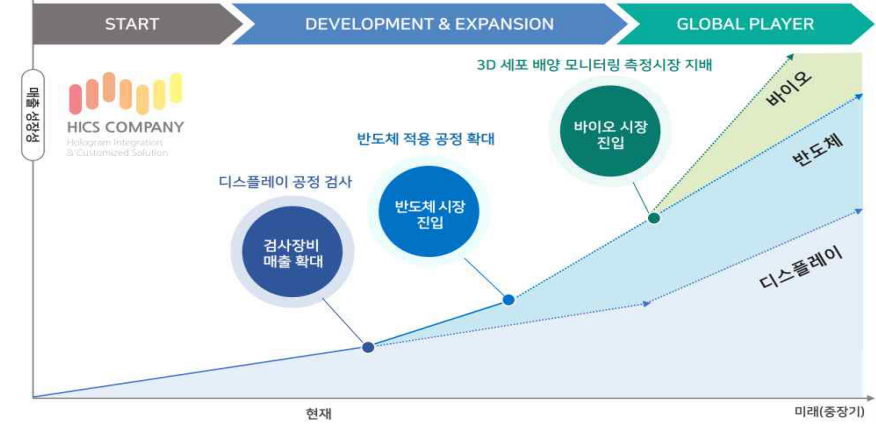
- 형광염색을 하지 않은 상태, 살아있는 세포에 대한 깨끗한 세포영상을 얻을 수 있음 (면역학, 혈액학, 세포생물학 등으로 사용가능)

- 기술/서비스 차별성
 - 시료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투과/반사된 빛으로부터 형성된 홀로그램 패턴을 분석하여 물체의 입체형상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 상대적으로 진동 안정성이 우수하고 One-shot 스캔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3D 광학 측정/검사 솔루션으로서 in-line 적용에 유리함
 - 측정방식 : 표면 형상 측정(반사형), 내부 광학 특성 측정 (투과형)

시장 현황 및 전망

- 시장규모
 - 전 세계 검사장비 시장규모는 2022년 15억 3,000만 달러로 평가<출처 : Fortune Business Insights>
 - 반도체 장비 시장은 2021년 726억 9000만 달러로 평가 <출처 : Precedence Research>
 - 평판 디스플레이(FPD) 장비 시장의 매출은 2021년 69억 5600만 달러로 평가 <출처 : QY Research Inc.>
- 시장전망
 - 전 세계 장비 시장은 2023년 16억 1,000만 달러에서 2030년 23억 8,000만 달러로 성장하여 예측기간 동안 연평균 5.7% 성장할 것으로 예상 <출처 : Fortune Business Insights>

사업 계획



조달연계 R&D 수행기업 대상 투자유치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교육

참석목적

- 기업발굴 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 지원사업 안내 및 유망기업 발굴
- 전문교육 조달연계 신기술 사업화 사업 R&D 수행기업 및 참석기업 대상 투자유치 교육 실시

행사개요

- 일정/장소 2023.7.19.(수)-7.21.(금) / 하이원 리조트 컨벤션 타워
- 주최/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조달연구원, KITIA
- 참여대상 R&D 수행기업 및 참석기업, 유관기관 등 40여명
- 주요내용
 - 1 공공조달 시장 및 신성장조달 제도 안내
 - 2 투자유치 전문교육
 - 3 투자유치 지원사업 안내 포함 기업별 맞춤형 개별컨설팅

협의회 지원내용

■ 지원사업 안내 및 유망기업 발굴

-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 지원사업 안내 및 맞춤형 개별 컨설팅을 통한 투자유망기업 발굴

■ 투자유치 전문교육

- 참석자 R&D 수행기업(10개사) 및 유관기관 등 33명
- 교육내용
 - 1 투자유치의 필요성과 조달방법
 - 2 벤처캐피탈의 이해 및 벤처투자 현황
 - 3 IR자료 작성 및 피칭방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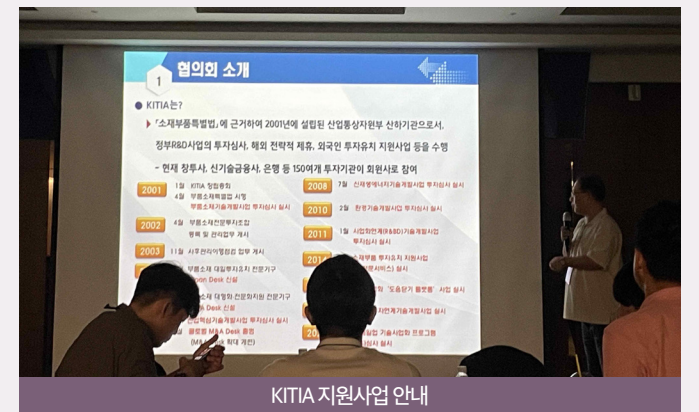
추진 결과

■ 주요 성과

- 투자유치 지원사업 안내 및 맞춤형 개별 컨설팅 및 네트워킹을 통해 ㈜포어시스 포함 10개사 유망기업 발굴
- 행사 참석기업 10개사 총 33명 대상 투자유치 전문교육 실시



투자유치 전문교육



KITIA 지원사업 안내



네트워킹 및 기업발굴



기업발굴



한국조달연구원 발표



연구단 과제 개발 현황 발표(10개사)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 후속 지원 KITIA 지원사업 지속 홍보 및 안내
 - IR 컨설팅 등 투자유치 지원사업, 투자연계형 R&D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유망기업의 사업 참여 유도
- 온라인 홍보 KITIA Noblesse 가입을 통한 회원사 딜소싱 지원
 - 참석기업에 온라인 매칭 플랫폼(KITIA Noblesse)을 홍보하여 투자기관과의 실시간 매칭 지원

2023년도『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 지원사업』 - 제7차 투자유치 마트 개최 -

행사개요

■ 사업 목적

- 국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VC 대상 IR 피칭 및 1:1 투자상담회, IR 전문교육 기회 마련

■ 사업 개요

- 행사명 제7차 투자유치 마트
- 「CoMPEX KOREA(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대전) 2023」전시회와 연계하여 개최
- 주최/주관 중소벤처기업부 / KITIA, (주)엑스포럼
- 일시 및 장소 '23. 7. 26(수) ~ 27(목) / 코엑스 C홀
- 참석자 전시참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6개사 및 VC 등 20명 내외

주요 내용

■ IR 피칭 (7/26, 수)

- 3개사 참여, 기업당 15분 진행(발표 10분 및 질의응답 5분)
- 사전 수요조사 통해 참여기업 7개사 중 IR 피칭 3개사 선정

발표순서	기업명	기업 주 생산품(서비스)
1	브라이트코퍼레이션	레이저 광학엔진, 홀로그램 광학엔진 및 광학엔진 탑재 device
2	크레플	모듈러 기반 시비전검사 솔루션
3	필라스크리에이션	대기환경물질측정센서 및 측정기 개발

■ 행사 사진



IR발표



질의응답 및 피드백

■ 1:1 투자상담 (7/26, 수)

- 4개 투자기관(VC 4명), 기업 6개사, 총 13회 투자상담 진행

• 참가기업 총 6개사

발표순서	기업명	기업 주 생산품(서비스)
1	두와이즈캠	고분산 및 고내열성 무기질화 셀룰로스 나노섬유
2	브라이트코퍼레이션	레이저 광학엔진, 홀로그램 광학엔진 및 광학엔진 탑재 device
3	에이피씨테크	측광체, 측광성 광촉매, 아연이온 이차전지 소재기술
4	이유씨엔씨	친환경 수성 단-차열 특수 도료
5	이유씨엔씨	대기환경물질측정센서 및 측정기 개발
6	크레플	모듈러 기반 시비전검사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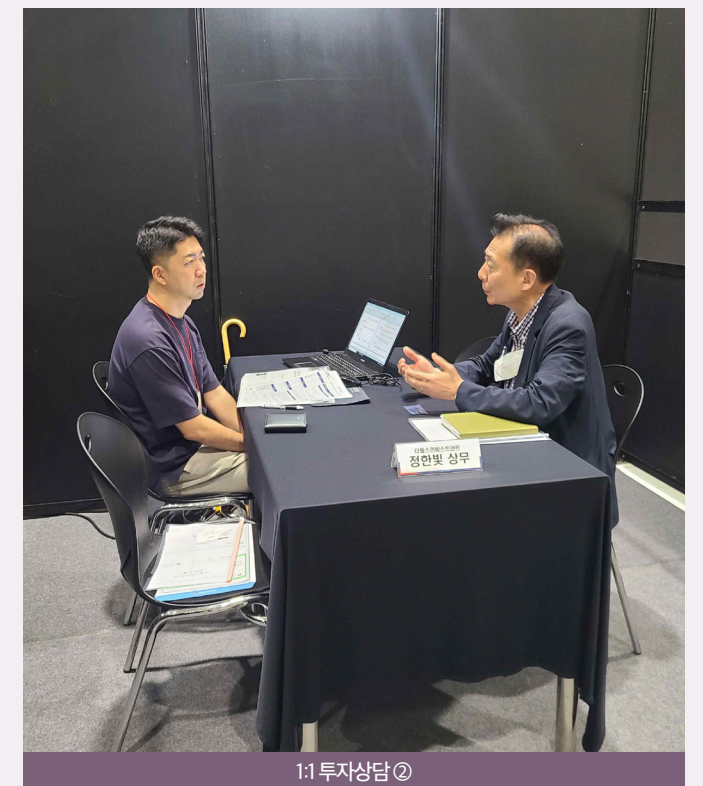
• 참석 투자기관 LIST

발표순서	투자기관명	비고
1	인터벌류파트너스	7/26(수) 참석
2	아주IB투자	
3	유안타인베스트먼트	
4	더웰스인베스트먼트	

■ 행사 사진



1:1 투자상담 ①



1:1 투자상담 ②

■ 1:1 투자상담 (7/27, 목)

- 4개 투자기관(VC 4명), 기업 5개사, 총 14회 투자상담 진행

•참가기업 총 5개사

발표순서	기업명	주요제품
1	두와이즈캠	고분산 및 고내열성 무기질화 셀룰로스 나노섬유
2	브라이튼코퍼레이션	레이저 광학엔진, 홀로그램 광학엔진 및 광학엔진 탑재 device
3	에이피씨테크	축광체, 축광성 광촉매, 아연이온 이차전지 소재기술
4	이유씨엔씨	친환경 수성 단·차열 특수 도료
5	필라스크리에이션	대기환경물질측정센서 및 측정기 개발

•참석 투자기관 LIST

발표순서	투자기관명	비고
1	엘앤에스벤처캐피탈	7/27(목) 참석
2	포스코기술투자	
3	유티씨인베스트먼트	
4	세마인베스트먼트	

■ IR 전문교육 (7/27, 목)

- 목적 IR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론, 투자유치 성공사례분석 등 전문가 교육을 통한 투자유치 이해도 제고
- 강사 세렌딕벤처스 김민성 대표
- 운영 제7차 투자유치 마트 참가기업 포함 전시 참여 관람객 대상 교육 실시

IR 전문교육	전문교육 내용
	<p>1. 성공적인 투자유치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캐피탈의 이해 - 투자유치전략 수립 <p>2. 투자기관이 원하는 IR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 사업계획서 작성 Process - IR 사업계획서 내용 작성 방법 <p>3. 실전 프리젠테이션 스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성공기업의 IR사업계획서 분석 - IR을 대비한 발표 방법 및 스피치 스킬

추진 결과

■ 주요 성과

- KITIA 실무위원 및 회원사 투자심사역 8명과 투자유치 희망기업 6개사 참여, IR 전문교육, IR발표 3건 및 1:1 투자상담 27회 진행 완료 (7월 26일-27일 총 2일간)



2023년 산업기술 정책펀드 CVC 얼라이언스 출범식 및 포럼 개최

행사개요

■ 행사 목적

- 모기업(대·중견)의 전략적 투자를 수행하는 CVC를 대상으로 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얼라이언스 출범 및 소통채널 구축

■ 행사 개요

- 행사명 CVC 얼라이언스 출범식
-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TIA
- 일시 및 장소 2023.7.24.(월) 14:00~16:00 / 롯데호텔(을지로) 크리스탈 볼룸(2F)
- 참석자 산업부(장관), 포스코기술투자, 효성벤처스 등 CVC(24개社), 정책금융기관, 전문기관 등 관계자 60명 내외
- 행사구성 얼라이언스 출범식, CVC 펀드 결성식, 포럼 등

주요 내용

■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포스코기술투자 임승규 대표)



축사(산업부 관장)



축사 (KIAT 민병주 원장)

■ CVC 얼라이언스 비전 발표

- 발표자 포스코기술투자 정우춘 실장
- 발표주제 CVC 얼라이언스의 비전

□ 주요 내용

- ① CVC 의의와 현황
- ② CVC 얼라이언스 역할
 - CVC 주도 R&D 오픈이노베이션
- ③ CVC 업권의 발전을 위한 제언
 -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개선
 - CVC 투자회수 관련 제도개선

발표내용



발표자



발표현장

■ CVC 얼라이언스 출범식·결성식·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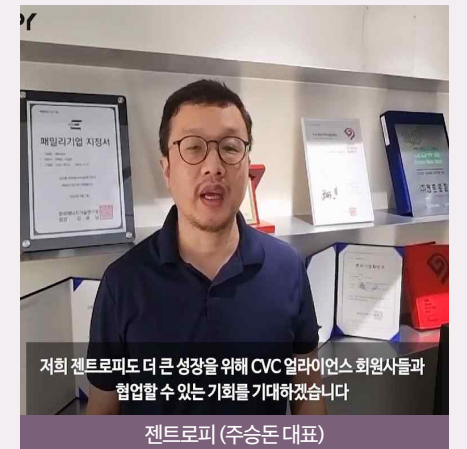
- 축전 영상 CVC 및 기업 임직원 인터뷰 영상(총 6개사)



배터와이 (한세경 대표)



효성벤처스 (이환영 상무)



젠트로피 (주승돈 대표)



엑스프로인베스트먼트 (이중훈 대표)



트위니 (천홍석 대표)



라이트하우스컴바인 (조태훈 상무)

- 출범식 CVC 얼라이언스 업무협력 세리머니 진행



CVC 얼라이언스 업무협력 전자서명



출범 세리머니

- **결성식** CVC 펀드 1호·2호 결성식 진행
- CVC 스케일업펀드 1호(효성벤처스), 2호(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먼트)결성기념 기념촬영 진행



스케일업펀드 1호



스케일업펀드 2호



전체기념사진

■ CVC 출범결과 및 운영계획 보고

- **발표자** KIAT 기술사업화단 관용원 단장

□ **주요 내용**

- ① 추진배경 및 출범결과
 - 투자활성화를 위한 소통채널 필요성
- ② 얼라이언스 구성 및 역할
 - 논의 분야별 3개 분과 운영
- ③ 운영방식
 - 분과 논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마련
- ④ 향후 일정
 - 분과 논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마련

발표내용



발표자



발표현장

■ 포럼 주제 발제 및 전문가 패널 토론 진행

- **발제1** CVC 현황·사례 및 미래 발전방향(이화여대 김창훈 교수)

□ **주요 내용**

- ① CVC 개념 및 정의
 - 개념 및 특징, CVC 채택사유
- ② 국내외 CVC 현황
 - 법개정 및 규제동향, 국내외 설립 동향 등
- ③ CVC 사례
 - Alphabet社, 롯데벤처스 등
- ④ CVC 발전방향 및 패널토론 주제
 - 최수채널 활성화 방안 및 법률규정 관련 등

발표내용



발제자

■ 포럼 주제 발제 및 전문가 패널 토론 진행

- **발제2** 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CVC 활성화 방안(산업부 서성태 과장)

□ **주요 내용**

- ① 현황 및 문제점
 -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CVC 규제현황 및 개선요청사항
- ② 추진과제1: CVC 펀드 조성 및 투자 확대
 - CVC 운영펀드 「8조원+α」 규모 조성
- ③ 추진과제2: 시장주도 R&D 및 성과창출 제고
 - CVC 주도형 공동R&D 신설 및 사업화 지원
- ④ CVC 투자기업 성장 지원
 - 투자대상 기업 기술확보, 경영지원, 판로확보 지원 등

발표내용



발제자

■ 패널토론

- CVC 운영/지원 관련 애로사항 및 주요 사례 제시
- CVC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사항 및 향후 지원 방향 토론



패널토론 ①



패널토론 ②



패널토론현장

2023년 제 2회 Tech-Finder 조찬 포럼 개최

행사 개요

■ 개 요

- 목적 해외기술도입 진흥기관으로서 조찬 포럼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 ① 해외기술도입 정보와 전략을 제공하여 해외기술도입을 활성화하고
 - ② 기업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기술도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함
-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일시 및 장소 2023.8.24.(목). 07:20-09:50 / 라마다 프라다 수원 호텔
- 참가규모 국내기업 임원급 45명, KITIA 및 강연자 12명

세부내용

■ 개 요

- 추진방향 국내기업 임원급을 대상으로 해외기술확보 정보공유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해외기술확보 생태계 활성화

■ 행사구성

크로스보더 M&A에 대한 전문지식 및 사례를 공유하고, 조찬 및 네트워킹 후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을 위한 제언으로 구성

- 개최사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박기호 회장
- 전문가강연① M&A 기업 사례 기반 크로스보더 M&A의 개념 및 절차와 전략에 대한 전문지식 전달
-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김철중 대표, “크로스보더 M&A 이해와 프로세스”
- 조찬 및 네트워킹 식사 및 참석자 간 네트워킹
- 전문가강연② 글로벌공급망 재편 현황과 대응을 위한 체크포인트
- PwC 컨설팅 권철현 파트너, “미·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사진촬영 참석 내외빈 기념사진 촬영

• 현장 사진



2023 제2회 기술사업화 Scale-Up day 개최

행사 목적

■ 개요

- CVC 얼라이언스* 대상 투자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및 기술사업화 유망기업 IR 발표·네트워킹을 통한 기업의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
- * 참여기관: 효성벤처스, 포스코기술투자 등 CVC 43개사

행사 개요

- 행사명 2023 제2회 기술사업화 Scale-Up day (부제: CVC Club 43)
-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TIA
- 일시/장소 2023.8.29.(화) 13:00~17:30 / 코엑스 스튜디오159(2F)
- 참석대상 기술사업화 유망기업 14개사 및 CVC 얼라이언스 13개 기관 심사역 22명, 기관 관계자 등 53명

행사구성

■ (분과회의) CVC 얼라이언스 대상 분과 회의 개최

- 투자확대 분과 논의를 통한 CVC 협업사업 및 예산지원 확대 방안 마련

【 CVC 얼라이언스 분과 구성현황 및 주요 안건 】

투자확대 분과	사업화 지원 분과	제도개선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IR 등 CVC간 협업사업 발굴 추진 • 전략적 투자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 정책펀드 지원 등 예산지원 확대 방안 • 업계 현황, 투자계획 등 실태조사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VC 투자연계 후속 R&D 연계 지원 방안 • 투자기업 대상 모기업, 공공연의 BM 수립, 기술 사업화 컨설팅 등 전 주기 지원 방안 • 투자효과 극대화 위한 공공연, 전문기관, 엑셀 러레이터 등의 참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사 체제내 CVC) 외부자금조달, 해외투자 규제 등 개선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 • (창투자, 신기사) CVC 설립 및 펀드투자 관련 규제완화 등 • (기술이전법 개정) 사업화 투자촉진 위한 CVC 활용 및 정부지원 방안 등

■ (IR 발표) 총 14개사, 기업별 7분 IR 발표 진행

- CVC 얼라이언스 대상 IR 발표를 통한 기업 홍보

■ (네트워킹) 기업-CVC 간 자유 네트워킹 진행

- 투자상담을 병행한 네트워킹을 통해 투자기관의 기업 이해도 제고

주요내용

■ (1부) CVC 얼라이언스 대상 분과 회의 개최 (투자확대 분과)

- 투자확대 분과 운영을 통해 마련된 논의 방안을 전체회의('23년 11월)에 보고 → 확정 및 협업과제로 추진
- 분과별로 주요 현안을 주제로 월별 논의하고 연말에 논의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발표 예정

【 분과회의 연간 일정 】

연간일정	분과	세부 주제
8월	투자확대 분과	공동 IR 등 CVC간 협업사업 발굴 추진, 하반기 펀드 공고 안내 등
9월	사업화 지원 분과	CVC 투자연계 후속 R&D 연계 지원 방안(투자 전 주기 지원방안)
10월	제도개선 분과	외부자금조달, 해외투자규제 등 개선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
11월	분과결과 종합 정리·발표	CVC 얼라이언스 포럼 및 분과별 논의 결과 정리·발표
12월	분과 총괄	차년도 분과 운영 계획 발표 및 논의

■ 투자확대 분과회의의 현장



분과회의의 현장 ①



분과회의의 현장 ②



분과회의의 현장 ③



분과회의의 현장 ④

■ (2부) CVC Club 43 IR 발표 진행

- 총 3그룹 14개사, 기업별 7분 IR 발표 진행
- 심사역 19명 대상 IR 의견서를 배포, 추가미팅 희망기업 파악 및 매칭

【 IR 발표 참여 14개사 】

구분	분야	기업명	주요내용
1	전기·전자	라이팩	• 기술/서비스 광연결 및 광센서의 핵심부품인 광엔진
		설립 2019 매출 0.6억원	• 투자포인트 기존의 고전적인 COB (Chip on Board) 방식 대비 소형화, 원가 절감, 대량 생산성, 고속 대응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와이젯		• 기술/서비스 XR 헤드셋의 무선 넥밴드 제품 및 칩 개발	
설립 2015 매출 20		• 투자포인트 초저지연, 저전력, 소형, 초고화질 데이터의 무압축 무선 전송이 가능한 60GHz 솔루션을 보유	
인포웍스		• 기술/서비스 FMCW 4D 라이더	
설립 2014 매출 42억원		• 투자포인트 자율주행 레벨3 이상 핵심 센서 선정 및 Pulse 라이더 대비 낮은 가격의 라이더 제품 출시를 목표	
현성		• 기술/서비스 스마트물류 4.0 플랫폼 & 스마트라벨	
설립 2014 매출 42억원		• 투자포인트 글로벌 로밍 SMART Wireless Sensing Networking 핵심기술 보유	
5	바이오·의료	디맨드	• 기술/서비스 디지털헬스케어 스트레스관리 모바일 앱
		설립 2012 매출 69	• 투자포인트 효과성에 대한 다수의 증거기반 임상시험 논문 보유
바이오뱅크힐링		• 기술/서비스 대변이식액 및 장내미생물 혁신신약 개발	
설립 2016 매출 0.5억원		• 투자포인트 아시아 최초, 국내 최대 규모 대변은행 및 절대혐기성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보유	
스마트스 코리아		• 기술/서비스 치아우식진단을 위한 광센서 기반 구강진단기기	
설립 2019 매출 3.5억원		• 투자포인트 영유아 구강검진 시 스마트스 장비를 이용하여 정량화된 데이터를 소비자에게 전달 하는 것을 목표	
엠디문		• 기술/서비스 세포유래소포 기반 약물전달시스템 플랫폼 개발	
설립 2015 매출 6.4억원		• 투자포인트 원하는 약물을 표적 조직에 효율적으로 타겟팅하고자 하는 수많은 신약개발 기업의 unmet needs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구분	분야	기업명	주요내용
9	기계·소재	아티스앤오션	• 기술/서비스 HW+SW 결합을 통한 워터스포츠(다이빙) 플랫폼
		설립 2013 매출 13억원	• 투자포인트 다이빙 하우징 장비 제작 노하우 및 비전 시기술 보유
젠트로피		• 기술/서비스 전기이륜차	
설립 2018 매출 12억원		• 투자포인트 '23년 상반기 국내 배터리 교환 방식 전기이륜차 시장점유 1위(44%)	
11	화학	마이크로 컴퍼지트	• 기술/서비스 Oil-free 금속가공유 및 대전방지 열전도성 플라스틱
		설립 2017 매출 17억원	• 투자포인트 온실가스 저감, 폐수/폐유 저감, 오일세척 공정 생략, 인체 유해성 저감, 작업환경 청정도 제고 등 기존제품 대비 경쟁력 보유
에이젠코어		• 기술/서비스 삼중수소 자발광체	
설립 2017 매출 54억원		• 투자포인트 핵심 소재인 삼중수소는 한국, 캐나다에서만 생산되며, 국내 유일의 삼중수소 판매 허가 및 기술, 설비, 특수운반용기 보유	
13	지식서비스	페이하다	• 기술/서비스 모바일 해외송금 플랫폼
		설립 2020 매출 2.2억원	• 투자포인트 기존 해외송금 대비 저렴한 수수료, 신속한 송금 시스템 구축
올트		• 기술/서비스 IoT 활용 MRO 플랫폼 서비스	
설립 2016 매출 27억원		• 투자포인트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재고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망 관리 및 고객사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	



■ IR 발표 현장



IR 발표 현장 ①



IR 발표 현장 ②



CVC 심사역 ①



CVC 심사역 ②

■ (2부) CVC Club 43 자유 네트워킹 진행

- 소셜버터플라이(명함교류) 포함 기업-CVC 간 네트워킹 진행
- 자유 네트워킹을 통한 개별상담 및 CVC별 투자검토의향 파악
- CVC 운영전략 발표를 통해 참석자의 이해도 제고

【 주제 발표 】

연사	소속	주제	비고
송준달 이사	PWC 컨설팅	CVC 운영전략	15분 프레젠테이션 발표

■ 네트워킹 현장



CVC 운영전략 발표



네트워킹 현장 ①



네트워킹 현장 ②



네트워킹 현장 ③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

■ 주요성과

- **분과회의** 분과 운영을 통한 CVC 정책펀드 투자확대 방안 마련
- '23년 하반기 정책펀드 운영계획 공유 및 애로사항·요청사항 의견 수렴
- **기업** 투자자 대상 기업홍보 및 정보제공을 통한 투자유치 기회 확보
- 후속 투자상담 희망기업 13개사 및 상담희망 38건 발굴
- **투자자** 신규 투자처 및 투자정보 발굴
- 기술사업화 유망기업의 투자정보 검토 및 투자이사 타진 기회 확보

■ 향후계획

- **분과회의** 사업화 지원 및 제도개선 분과 운영을 CVC 얼라이언스 활성화 방안 도출

【 분과회의 연간 일정(안) 】

연간일정	분과	세부 주제
9월	사업화 지원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VC 투자연계 후속 R&D 연계 지원 방안 • 투자기업 대상 모기업, 공공연의 BM 수립,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 전 주기 지원 방안 • 투자효과 극대화 위한 공공연, 전문기관, 엑셀러레이터 등의 참여 방안
10월	제도개선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사 체제내 CVC) 외부자금조달, 해외투자 규제 등 개선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 • (창투자, 신기사) CVC 설립 및 펀드투자 관련 규제완화 등 • (기술이전법 개정) 사업화 투자촉진 위한 CVC 활용 및 정부 지원방안 등
11월	분과 결과 종합 정리·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 논의 결과 종합 정리 및 발표
12월	분과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년도 분과 운영 계획 논의

- **후속 상담** 투자기관-관심기업간 통한 후속 투자상담 지원
- 후속 상담을 희망하는 행사 참석 투자심사역 대상 발표기업 적극 매칭
- **성과 조사** 후속 지원 및 홍보를 통해 발생하는 성과에 대한 추적 조사 실시

스웨덴 반도체 유망기술기업과의 매칭 상담회 개최

행사개요

- 행사명 스웨덴 반도체 유망기술기업과의 매칭 상담회
- 목적 국내기업과 업무협력을 희망하는 해외기술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1:1 매칭을 통해 기술협력 기회 제공 등 기술확보 활동 촉진
- 주관 KITIA, Business Sweden
- 일시 8/30 (수), 8/31 (목), 10:00~17:00
- 장소 KITIA 대회의실
- 대상 NSS Water 등 스웨덴 유망기업 및 국내 기술협력 희망기업

상담회 주요실적

- 반도체 및 유관산업 분야 내 유망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발굴하고 국내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
 - 반도체 및 유관분야 내에서 국내기업과 업무협력을 희망하는 유망기술 보유 해외기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해외파트너로 활용 예정
 - 기술제휴, 시제품 구매 및 샘플 테스트, 공동기술개발 등 다방면의 업무협력이 예정되어, M&A,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 가능성 확인
 - 스웨덴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에 대한 국내기업의 높은 관심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으며, 향후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 확인

향후계획

- 상담회 참여기업 간 추가 논의, 공동 개발 추진을 위한 미팅 주선, NDA 검토 등 일련의 후속 과정 지원 예정
- Business Sweden과 공동기술개발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兩 국가의 기업 간 상세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추가 미팅 진행 예정

■ 스웨덴 반도체 유망기술기업과의 매칭 상담회 참가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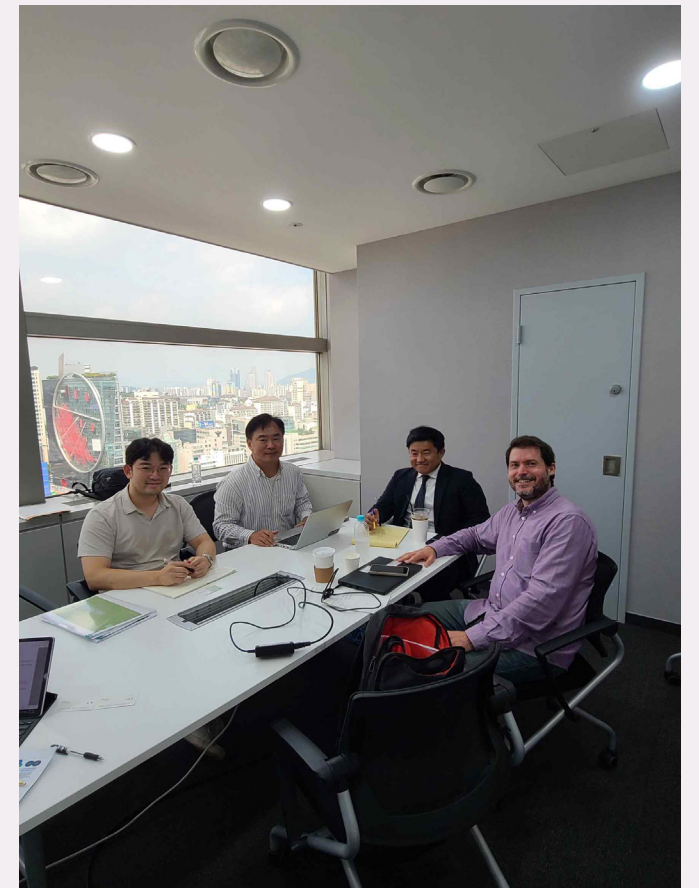
1. 국내기업

기업명	주요내용
유림특수화학	- 고분자 기반 레이어링 소재 제조기업
아이에스시	- 반도체 테스트 소켓, FCCL 제조기업
씨제이케이	- 수소전지, 2차전지 필터, 초순수 설비 제조기업
마이크로윈	- 폐기물 소각, 발전소 설비, 고기능 멤브레인 필터 제조기업
메타포어	- MEMS 멤브레인 필터, 엑소좀, 아미노산, 펩타이드 합성물 제조기업
제우스	-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습식 공정 설비 및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동우하이켄	- 반도체, 디스플레이, 터치 센서, AoD용 화학품 제조기업

2. 해외기업

기업명	기업정보
NSS Water Enhancement Tech AB	- '20년 설립, 초고순도 물(NPW, Nano Pure Water) 제조 및 기술개발기업 - WET(Water Enhancement Tool) 기술을 통해 5-10nm 나노 수준 단계까지의 오염을 제거 가능 - 반도체 에칭, 웨이퍼 세정, CMP, LDS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수요 맞춤형 수준의 제품 제조 가능 - 스웨덴에 본사 위치, 독일, 한국에 사무소 위치 - KAIST와 연구 협력, 글로벌반도체 기업들과 협력 관계 보유
Mat4Green Tech	- '17년 설립, 폐기물 재활용 및 인동 생산기업 - 동사가 보유한 기술은 폐기물에서 고순도 ITO(인동주석 산화물) 분말을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생산 가능 - 반도체, 태양광 전지, 디스플레이 패널, LED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하며, 수요 맞춤형 제품 제조 가능 - TRL 16의 연구개발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연구기관, 에너지 기업, VC와 협력 관계 보유

■ 스웨덴 반도체 유망기술기업과의 매칭 상담회 현장사진



2023년 3분기 소부장 Insight 조찬 세미나 개최

목적

- 첨단 반도체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 강연을 통한 회원사 반도체 산업 분야 투자 로드맵 수립에 기여 및 회원사 간 네트워킹 제공을 통한 소·부장 투자 생태계 강화

세미나 개요

-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07:30 ~ 09:30
- 장소 삼정호텔 신관 1층 아도니스 홀
- 참석 대상 KITIA 회원사 임직원 등 66명
- 주요 내용

- (주제) K-반도체 “첨단 시스템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
- ‘설계(Fabless)부터 위탁생산(Foundry)까지’ ‘K-반도체 초격차 생태계’를 주제로, '22년 설립된 유망 반도체 Start-up 중 시드 투자유치 우수기업 강연

■ 행사 세부 내용

- 개회사 및 인사 말씀 (7:30~07:40, KITIA 박기호 회장)



박기호 회장 인사 말씀①



박기호 회장 인사 말씀②

• 조찬 및 네트워킹 (07:40 ~ 08:10)



네트워킹 ①



네트워킹 ②



네트워킹 ③



네트워킹 ④



● 세미나 1. 메티스엑스(주) 김진영 대표이사 (08:10 ~ 08:50)

- '차세대 메모리 인터페이스 CXL(Compute Express Link) 기반 지능형 메모리 솔루션 개발'이라는 주제로 반도체 메모리 산업 전망 및 기술 현황 공유
- (기업정보) '23년 상반기 Seed 투자 Top 3 기업

[기업 주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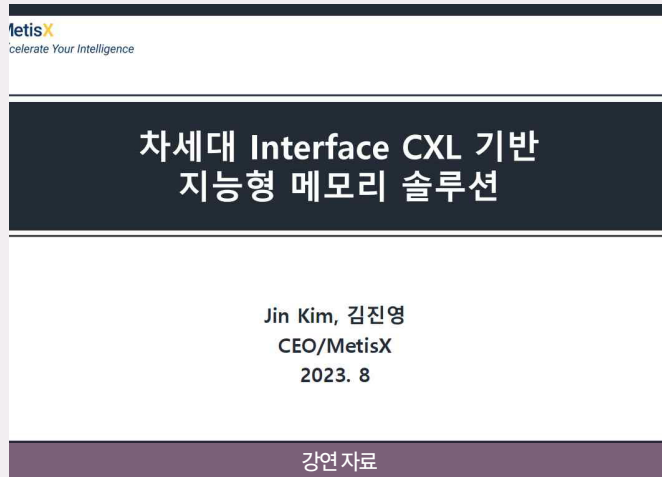
기업명	메티스엑스(주)	설립일	2022-01-03
표준산업분류(10차)	(C26112)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 집적회로 제조업		
투자유치 단계	Seed	투자유치 금액	약 85억 원
주요 투자기관명	미래에셋벤처투자, IMM인베스트먼트, 원익투자파트너스, SBI인베스트먼트 등		

- (발표자 약력) SK하이닉스 최연소 임원(부사장) 출신의 메모리 기반 솔루션 전문가

[발표자 주요 약력]

성명(출생연도)	사진	주요 이력
김진영 (1980년)		- 現 메티스엑스(주) 대표이사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전공 - 前 SK하이닉스 부사장 - 前 삼성전자, SK텔레콤 근무

[세미나① 강연자료 및 현장]



● 세미나 2. 반암(주) 한수덕 대표이사 (08:50 ~ 09:30)

- '도심형 Micro Foundry 기반의 차세대 반도체 박막 개발'을 주제로 반도체에 활용되는 소재 개발에 관한 기술 현황 공유
- (기업정보) 서울 주거지 중심에 설립한 반도체 마이크로 파운드리

[기업 주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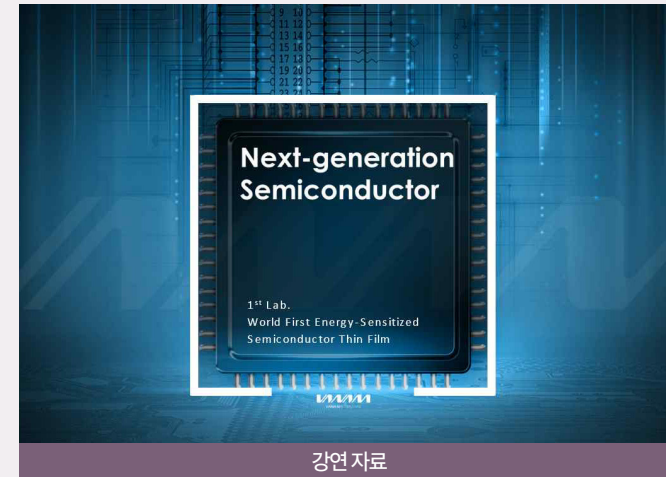
기업명	반암(주)	설립일	2022-01-27
표준산업분류(10차)	(C26129)기타반도체 소자 제조업		
투자유치 단계	Seed	투자유치 금액	약 7억 원
주요 투자기관명	슈미트,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발표자 약력) 반도체 박막 관련 국내-외 최상위 SCI 저널 27편 집필

[발표자 주요 약력]

성명(출생연도)	사진	주요 이력
한수덕 (1982년)		- 現 반암(주) 대표이사 -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과 학사, 박사 - 前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 前 영국 캠브릿지대학교 전자과 선임연구원

[세미나② 강연자료 및 현장]



2023년도『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 지원사업』 - 제8차 투자유치 마트 개최 -

행사개요

■ 사업 목적

- 소부장 유망 기업과 혁신성장펀드 운용사 간 투자설명회를 통해 혁신성장펀드 투자 촉진 및 이를 통한 투자성과 창출

사업 개요

- 행사명 제8차 투자유치 마트
- 'KDB 찾아가는 혁신성장펀드 투자설명회'와 연계하여 개최
- 주최/주관 KDB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KITIA
- 일시 및 장소 '23. 9. 6(수) 14:00~16:00, KITIA IR Center
- 참석자 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 희망 기업 및 혁신성장펀드 위탁운용사 등 10명 내외
- 대상기업 : 혁신성장펀드 투자유치 희망기업 4개사
- 투자기관 : 하나벤처스,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 프로그램 개요

- 주요 내용 투자심사 대상기업 IR 발표 및 질의응답(기업당 25분 내외 발표)

주요 내용

■ IR 발표 및 질의응답

- 참여기업 4개사, 각 25분 IR 발표 및 5분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프로그램 진행

구분	기업명	기술분류	기업 주 생산품(서비스)
1	오션스바이오	바이오·의료	전자약 디바이스(우울증, 뇌전증)
2	라이팩	전기·전자	광연결 및 광센서의 핵심부품인 광엔진
3	현성	전기·전자	스마트물류 4.0플랫폼 & 스마트 라벨
4	와이젯	정보통신	60GHz 무선 통신 칩 및 제품

■ 행사 사진



IR 발표 ①



IR 발표 ②



질의응답 ①



질의응답 ②

추진 결과

■ 추진 결과

- 기업 혁신성장펀드 위탁 운용사 대상 IR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투자유치 역량 증대, 투자활성화 도모 및 투자자 정보 제공
- 투자자 신규 투자처 및 투자정보 발굴
- 유망기업의 투자정보 검토 및 투자이사 타진 기회 확보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 후속 지원 투자기관의 관심기업 조사를 통해 후속 투자상담 지원 및 보완사항 필요기업 위주 후속 조치
- 성과 조사 후속 지원을 통한 성과에 대해 추적 조사 실시

2023년도『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 지원사업』

- 제9차 투자유치 마트 개최 -

행사개요

■ 사업 목적

- 화장품, 스킨케어 등 뷰티 및 헬스케어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관련 맞춤형 상담지원을 통해 금융 애로사항 해소 및 투자 활성화 도모

행사 개요

- 행사명 제9차 투자유치 마트
- 「2023 뷰티&헬스케어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
- 일시/장소 '23. 9. 7(목) 13:00~15:00 / 인천 송도컨벤시아
- 참석자 소부장 투자유치 희망기업 및 VC 심사역 등 10명 내외
- 대상기업 : 뷰티 및 헬스케어 분야 내 유망기업 포함 6개사
- 심사역 : KITIA 회원사 소속 투자심사역 3명

■ 참가기업

- 뷰티 및 헬스케어 산업에 종사하는 유망기업 6개사

구분	기업명	기업 주 생산품(서비스)
1	바른플랜	HAMEL 기능성 비건 화장품
2	새비	차즈기 추출물이 함유된 스킨 및 바디케어 제품
3	엘모어	GLANMOOR 기능성 화장품
4	주	주오라 크림 등 친환경 화장품
5	천국트레이드	종합 이너뷰티(건강보조식품)
6	헬씨바이오	은나노 향균 코팅제, 실버실리콘 바스크, 기능성 수면안대

■ 참가 투자기관 LIST

구분	투자기관명
1	위벤처스
2	티에스인베스트먼트
3	한국바이오투자파트너스

주요 내용

■ 1:1 투자상담

- 9월 7일(목) 13:00 ~ 15:00, 기업당 30분씩 운영
- 3개 투자기관(VC 3명), 기업 6개사, 총 12회 1:1 투자상담 진행

■ 행사 사진



1:1 상담 ①



1:1 상담 ②



1:1 상담 ③



1:1 상담 ④

추진 결과

■ 향후 계획

- 후속 지원 투자기관의 관심기업 조사 및 발굴을 통해 후속 투자상담 지원 추진 예정
- 후속 조치 상담 후 보완사항 필요기업 위주 후속 조치 실시
- 성과 조사 후속 지원 등 1:1 투자 상담 후 발생하는 성과에 대한 추적 조사 실시

찾아가는 IR 서비스(현장방문 Fam-Tour) 개최

개회 목적

■ 개최 목적

- KITIA 투자심사역이 기술사업화 유망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 발표 및 사업장 실사를 통해 기업에 대한 이해도 및 투자관심도 제고
- 지역소재 기업 집중지원을 통한 맞춤형 투자유치 기회 제공

■ 행사 개요

- 행사명 찾아가는 IR 서비스 (현장방문 Fam-Tour)
- 일시/장소 '23. 9. 12.(화)~13.(수), 9. 21.(목)~22.(금) / 개별기업 회의실 및 사업장
- 참석자 투투자유치 희망기업 및 VC심사역 등 약 30여명
 - 대상기업 : 우수기술 보유 지역기업 11개사
 - VC심사역 : KITIA 회원사 심사역 9명

방문일	방문기업명	주요제품	소재지	방문 투자기관 (심사역)
9. 12(화)	라드피온	이온주입장치	대전	❶ 마그나인베스트먼트 ❷ 안다아시아벤처스 ❸ 트라이앵글파트너스
	멤스룩스	마이크로렌즈어레이	대전	
	엠케이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플랫폼	세종	
9. 13(수)	아스트로닉스	재난안전제품	군산	❶ 우리벤처파트너스 ❷ 포스코기술투자
	에너지스	자동시험장비	정읍	
9. 21(목)	에스씨솔루션글로벌	IoT 센서	대구	❶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❷ 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
	혁신컴퍼니	홀로그래픽 현미경	구미	
9. 22(금)	드라이브포스	선박 추진 시스템	부산	❶ 엘앤에스벤처캐피탈 ❷ 유티씨인베스트먼트 ❸ 트라이앵글파트너스
	이지지오	소프트웨어 개발	부산	
	케이랩스	3D 프린터	울산	
-	첨단랩 *	세라믹 소재 부품	광주	❶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❷ 우리벤처파트너스 ❸ 포스코기술투자 ❹ 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

* (첨단랩) 방문 일정이 맞지 않아 심사역 개별 온라인 미팅 실시

주요 내용

■ 기업 IR 및 현장 실사

- 4개 권역(충남, 전북, 경북, 경남)별 2~3개사 방문하여 VC 심사역 상대 IR 발표 및 현장 실사 통해 투자유치 활동 실시

구분	지역	기업명	기업주 생산품(서비스)
1		엠케이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플랫폼
			
2	9/12(화) 충남	라드피온	이온주입 제전부품, 이온주입장치, 이온빔 분석
			
3		멤스룩스	첨단 디스플레이 도광판, 마이크로 광학 부품, 자동차 내·외장 조명 등
			

구분	지역	기업명	기업주 생산품(서비스)
4	9/12(화) 충남	아스트로닉스	차장 이동 타입 LED 타워 조명 자동차
			
5		에너지스	자동 시험 장비 솔루션
			
6	9/21(목) 전북	에스씨솔루션 글로벌	누수감지센서 클라우드-어플리케이션이 통합된 ICT 융복합 제품
			
7		히스컴퍼니	디지털 홀로그래픽 현미경
			

구분	지역	기업명	기업주 생산품(서비스)
8		이지지오	인공지능 기반 피로예측 서비스 제공 플랫폼
			
9	9/22(금) 경남	드라이브포스	선박용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원치 제어 시스템 등)
			
10		케이랩스	금속 3D 프린팅 기술 적용 방산 부품, 소결기반 적응 제조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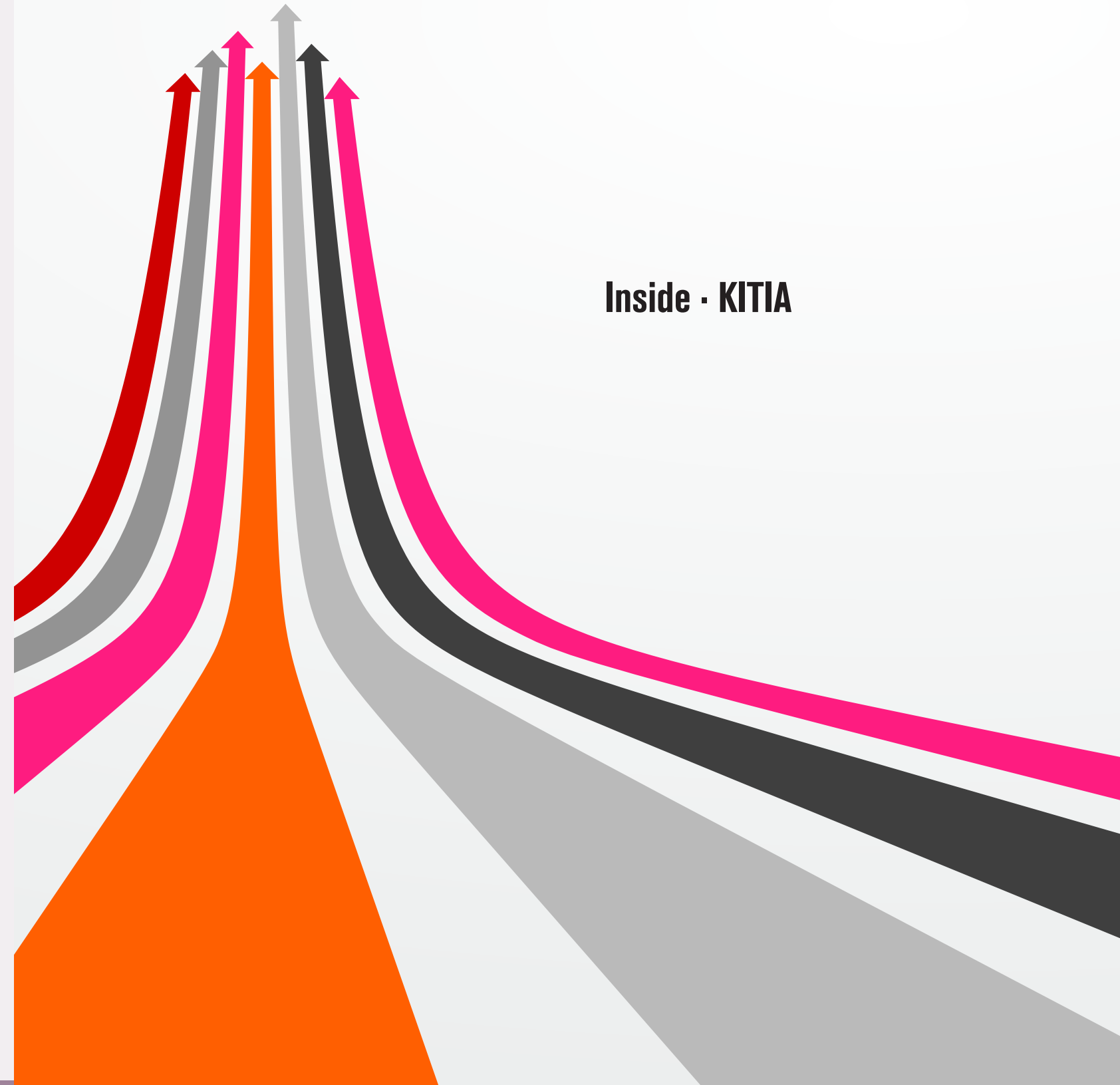
추진 결과

- **주요 성과** 4개 권역 기업 IR발표 11건 및 투자상담 30건, 공장 실사 추진
- **기업** IR발표 및 투자상담, 공장실사를 통한 투자활성화 도모
 - 기업홍보 및 투자자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투자유치 기회 확보·경험
- **투자자** 신규 투자처 및 투자정보 발굴
 - 유망기업의 투자정보 검토 및 투자이사 타진 기회 확보

향후 계획

■ 향후 계획

- 후속 지원 투자기관의 관심기업 조사 및 발굴을 통해 후속 투자상담 지원 추진 예정
- KITIA 회원사 소속 투자심사역 및 관계자에 기업자료 제공을 통해 1:1 투자상담 희망 투자기관 모집
- 후속 조치 상담 후 보완사항 필요기업 위주 후속 조치 실시
- 성과 조사 후속 지원 등 1:1 투자 상담 후 발생하는 성과에 대한 추적 조사 실시



Inside · KITIA